Weekly 공감
2009 06.03 No.14(통권 115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화보 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
국제사이클대회 홍보대사 여성 듀오 '다비치'
"녹색미래, 두 바퀴로 함께 열어요"
집중 기획 녹색생활 실천운동
북핵+미사일
누구를 겨냥하고 있나

희망근로 2009
희망으로 날다
힘내라, 경제야!
당신을 응원합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2009 희망근로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09. 6월 ~ 11월 (6개월간)
■ 모집기간 | 2009. 5월 13일 부터
■ 모집인원 | 전국 00만명
■ 참가자격 |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자
■ 참여신청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 기타 신청자격, 선발절차, 근무시간, 임금 등 자세한 사항은
시 · 군 · 구 및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北核대응, 내부단결이 최우선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북한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 지난 4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보다 더 엄중한 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의 협력과 평화를 염원해온 우리 국민과 정부,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분명한 배신이며 도전이다. 이번 핵실험은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북한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처지를 이해하고 지원해왔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조차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채택할 것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핵 포기보다 핵 보유가 더 불리하다는 사실을 북한이 깨닫도록 국제적 협력 구도를 구축하는 일이다.

북한은 부분적인 핵 프로그램 동결을 통해 보상을 받아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6자회담에서 협상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제 북한은 6자회담을 무력화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군축 협상을 벌이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최종 목표는 북미협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지를 약화 또는 철회시키고,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의 역학구도를 변화시키려는 데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한에 대한 국력 열세를 상쇄함과 동시에 향후 통일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핵무기가 그들이 우려하는 흡수통일을 넘어서 오히려 남한을 압박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국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슬기롭게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 기간에 북한은 핵실험으로 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국면에서도 민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북한이 만든 위기국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와 견해 차이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단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모든 위협 수단을 가동해 우리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긴장국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분열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대응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반대논리로써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 의지를 현실화하려는 상황에서 그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우리의 PSI 참여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무모한 도발이나 위협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북한이 핵 야망을 접고 진정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단결이다. G

Contents

Weekly_2009.06.03_No.14(통권 115호)

표지 설명 북한은 2차 핵실험 후 닷새간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올해 초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06

48

발행일 2009.6.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녹색소비 가상 비교
탄소발자국 No! 녹색발자국 Yes!

'디브러리'를 만나보세요

"녹색성장, 함께 시작합시다"

●● 지난 한 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가 인터넷에서도 가득했습니다. 독자들의 댓글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도 '국민 모두와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5월 29일 오전 11시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했습니다. 〈Weekly 공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추모 화보를 마련했습니다. 고인의 유언대로 이제 미움과 원망은 '슬픔의 눈물'로 씻어내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회통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Weekly 공감〉 13호(5월 27일자) 기획특집은 '지구를 살리는 유쾌한 방법, 녹색소비'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시민 녹색소비 가상 비교, 탄소발자국 No! 녹색발자국 Yes!' 기사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린스타트 홈페이지(www.greenstart.kr)에 들어가서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관련 기사를 읽은 독자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탄소발자국 정말 대단하게 와닿는군요. 이런 정보는 많이 알려야 합니다. 퍼갑니다." _ 오뚜기

●● 13호에 실린 '디브러리를 만나보세요'를 읽은 독자들이 디지털도서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 마련된 디지털도서관에 이어 앞으로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독자의 댓글을 싣습니다.

"지역 단위에도 많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전자북도 활성화되면 더 좋겠구요." _ 함차

●● 13호에 실린 '신주쿠에 김치 매운 깃발 꽂다' 기사를 읽은 독자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일본은 김치가 좀 싱겁지 않나요? 다음에 일본에 가면 한번 찾아서 먹어보고 싶네요~" _ 두루누리

●● 10호(5월 6일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4대강 살리기'를 실었고, 13호에는 '대한민국 잇는 새 물길, 영상으로 보는 4대강 살리기'를 실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성되는 날에 대한 기대가 큰 독자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는 날 기념으로 낙동강에 풀어줄 금붕어를 기르겠습니다. 이날 4대강 선상에서 기념결혼식을 하는 이벤트를 미리 준비해서 신청도 받고 신청한 부부들에게 푸짐한 경품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_ 태양의은총

●● 13호 기획특집 기사 중 22쪽에 나오는 '환경마크협회'는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해주신 이유경 님께 감사드립니다.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일본 현지 한식 프랜차이즈 한식당 '처가방' 오영석 대표

신주쿠에 김치 '매운' 깃발 꽂다

똑똑똑… 궁금합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결된 '전국분향소 안내'에 많은 독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인(死因)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에서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서도 사인을 철저히 조사해 밝힌 만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의혹설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한 독자는 장지 문제를 제기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국 분향소 설치 잘하셨네요.
국민투표로 국민이 뽑았던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장지는, 먼 훗날을 생각하면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유족의 뜻이라 해도 작게는 가족의 한 분이지만 크게는 이 나라 국가원수의 자격을 가졌던 분입니다. 유족 분들을 설득해서라도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에 안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후대에 후손들이 국민이 뽑은 16대 대통령이 이름 없는 야산의 묘소에 모셔져 있다면… 왜~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럼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현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들을 생각해서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에 모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_ 큰별

●● 큰별 님의 제안은 의전상으로나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장의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서와 유족의 뜻에 따라 장지가 정해진 만큼 존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9		

정답을 적어 주소 · 연락처와 함께 6월 11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서 몇 분을 뽑아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가 로

1. 이번에 우리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전면 참여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영문 이니셜을 한글로 발음하면 OOOOO.

4. 6월 1, 2일에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OO도는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한 섬으로 세계적 관광지입니다.

6. 공연히 조그만 흠을 들춰내 불평하거나 말썽을 부림. "OO을 부리다."

7.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함. "만일의 사태에 OO하여 경계태세에 돌입하다."

9. 6자회담 국가 중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7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OOO 대통령에게 전화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세 로

2. 출발을 뜻하는 영어 단어. 그린OOO란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녹색생활운동으로, 저탄소 생활방식을 정착시켜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일구는 것이 목적이다.

3. 바로 이때. "나도 OO 담배를 끊어야겠다."

5. 연극, 영화, 소설 등에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 "그는 처음으로 이번 영화의 OOO으로 발탁됐다."

7.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지명으로, 북한은 미사일에 이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OOO 2호 미사일.

8. 폭력을 써서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등에 맞서 미국은 OO지원국의 재지정과 추가 금융제재를 비롯한 강경한 대북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Weekly 공감〉 12호(5월 20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2 오른손 3 속기 5 조카 7 봉사자 9 리스트

세로 1 약속 2 오색조 4 기부천사 6 카이스트 8 자리

당첨자

박기순(대전시 중구 문화동) 안주옥(대구시 북구 구암동)
이승석(전북 정읍시 상동) 이인재(강원 원주시 단계동)
황의범(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恨은 풀고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삶이었습니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약하고 가난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 늘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와 국민과 함께하는 서민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당신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룩한 업적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뒤에 남은 우리는 그토록 열망하시던 화합과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고
품격 있는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생전의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조사(弔詞) 중에서

열정은 남기고… 고이 잠드소서

1.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5월 25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분향하고 있다
2. 권양숙 여사 등 유족들이 슬픔을 억누르고 있다.
3.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장 영결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 등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지금은 침묵으로 당신을 떠나 보냅니다

5월 23일 서거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들의 애도 속에 국민장으로 엄숙하게 치러졌다. 영결식은 5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등 각계 인사 2천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복궁 흥례문 뜰에서 진행됐다. 영결식에 이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노제가 치러졌는데, 수십만 인파가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명복을 빌었다. 유해는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된 후 고향인 봉하마을 정토원에 안치됐으며, 49제를 마친 뒤 봉하마을 사저 옆 야산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민장 기간 동안 정부는 서울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 국민들의 조문을 받았다.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 조영철 기자

4.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가 조문하고 있다.
5.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연보

1946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출생
1959년	경남 김해 진영 대창초등학교 졸업
1966년	부산상고 졸업(53회)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8년	변호사 개업
1981년	부림사건 변론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 시작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1998년	15대 종로구 보궐선거 출마(국민회의) 당선
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역임(2000년 8월~2001년 3월)
2002년	4월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취임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2008년	2월 24일 대통령 임기 종료
2009년	5월 23일 서거

1. 영결식이 끝난 후 운구차가 시민들의 애도 속에
   수원 연화장으로 향하고 있다.
2.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씨,
   딸 정연 씨, 며느리 배정민 씨, 아들 건호 씨, 부인 권양숙 여사,
   한명숙 전 총리, 한승수 국무총리,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김영삼 전 대통령.
3. 분향소 앞에 붙어 있는 고인의 넋을 기리는
   국민들의 조문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4.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국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 증가… 국내 감염 확산

"독감 수준… 폐렴 주사로 예방 가능"

신종 인플루엔자A 환자가 최근 국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다. 5월 29일 오후 현재 확진환자만 35명에 이른다. 이 전염병의 실태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을 살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A(H1N1 · 이하 신종플루)가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게 될까. 5월 27일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 사망자는 멕시코가 83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10명, 캐나다 1명, 코스타리카 1명 등 총 95명이다. 감염환자가 나온 국가만도 5월 27일 현재 51개국으로 늘었다.

국내에서 신종플루는 그동안 다소 주춤하는 듯했다. 지난 5월 2일 첫 신종플루 환자가 확인된 이래 19일까지 4명의 환자밖에 발생하지 않아 소강 국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국내 신종플루 감염은 23일부터 크게 증가해 29일 오후 현재 확진환자가 총 35명으로 늘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 등 위험지역에서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할 예정이어서 신종플루의 국내 확산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보건당국의 방역망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지난 23일 이후 서울 강남 C어학원 외국인 영어강사 중 22명에서 신종플루가 집단 발병한 것은 입국과 이후 점검과정에서 감염자를 걸러내는 데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입국 당시 공항에서의 발열감시와 검역질문서 작성, 이후 전화 모니터링 등 단계별 검역과정에서 감염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모두 65명인 영어강사 일행(인솔자 1명, 운전자 1명 제외) 중 최초 감염환자로 추정되는 23세 미국 여성은 입국 당일인 16일에 이미 증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 여성은 공항의 발열감시기를 무사히 통과했으며 검역질문서 답변을 통해서도 의심증상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잠복기를 고려해 입국 5일째 실시하는 전화 모니터링에서도 이 환자는 걸러지지 않았다.

동아DB

인천국제공항 검역소 검역관들이 적외선 열감지기에서 발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외국인 관광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더욱이 강사 일행이 묵은 곳은 서울 강남지역에 자리한 3백 5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이어서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1주일간 이곳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외출해 지역주민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접촉자 중 신원 파악이 가능한 인물은 추적조사를 할 수 있지만 신원이 불분명한 접촉자는 추적조차 어렵다.

더욱이 외국어 강사 중 32명은 5월 22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춘천 등 지역사회에서 하루 정도 체류했기 때문에 이들 중 잠복기 환자가 있을 경우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병률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은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다면 검역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신종플루 집단 발병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DB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진단센터 연구원들이 신종플루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전염성 있지만 확산돼도 불안해할 필요 없어

이 외국인 강사 확진환자들이 실제로 배치된 지역은 서울 도봉, 성북, 마포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 대구 등지다. 이들은 이동수단으로 지하철과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와 광범위하게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이들에 의한 2차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신종플루의 잠복기가 최장 7일인 점을 감안하면 2차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예방에 치중하고 있는 방역대책을 치료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시점에서는 해외 환자 유입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데 힘쓰고 있지만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할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보건당국은 또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유행에 대비해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유학생 등 예비 입국자 대상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위험지역 여행자들에 대해 의심증상을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으나 앞으로는 해외여행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기침, 목 통증, 콧물 등)이 나타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의료기관에도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방학을 맞아 해외유학생 등이 대거 귀국할 것을 고려해 미국과 캐나다 현지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입국 시 주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신종플루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기관과 각급 학교를 통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등 유관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신종플루 능동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은 급성 발열호흡기 질환자의 진료 건수를 관내 보건소에 매일 신고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또 학교에서의 집단 발병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1백80개 지역 교육청별로 초중고등학교의 결석자 현황을 매일 집계, 분석해 특정지역에서 결석자가 급증할 경우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방역체계는 체계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다. 손을 자주 씻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발병 시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간다면 이번 신종플루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박승철 신종인플루엔자대책위원장은 "신종플루는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환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독성 면에서 일반 독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확산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예방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것보다 폐렴 예방주사가 훨씬 효과적"이라며 "다만 암 투병 중이거나 간경화,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전염병에 취약하므로 조심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방역체계는 체계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다"며 "의료 도 세계적 수준이므로 손을 자주 씻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발병 시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간다면 이번 신종플루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영번(문화일보 사회부 기자)

멀티 터치스크린 기술 창시자 제프 한

"디지털시대 새 세상을 연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멀티 터치스크린 기술을 개발한 제프 한 퍼셉티브 픽셀사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08년 세계의 영향력 있는 1백인'에 들기도 했다.

조영철 기자

제프 한은 멀티 터치스크린 기술이 컴퓨터의 개념과 모습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예견했다.

올해 초 〈CNN〉의 미국 대선 예비선거 방송 당시, 진행자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매직터치 기술을 통해 지역별 개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화제가 됐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멀티 터치스크린 장면이 현실화된 것이다. '매직월(Magic Wall)'이란 이 기술을 개발한 주인공은 바로 이민 2세대인 제프 한(한국명 한재식).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제프 한은 2005년 멀티 터치스크린 관련 논문을 발표한 뒤, 2006년 퍼셉티브 픽셀사를 창립해 관련기술의 상용화를 시작했다. 그는 멀티 터치스크린이 〈CNN〉의 미국 대선 예비선거 방송에 활용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의 영향력 있는 1백인'에 들기도 했다. 또한 올해에는 디자인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미국 'National Design Award'의 인터랙션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제프 한이 '서울디지털포럼 2009'에 참석하기 위해 9세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멀티 터치스크린 기술이 컴퓨터의 개념 바꿀 것

SBS가 2004년부터 개최해온 서울디지털포럼은 디지털시대의 혁신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의 국제포럼이다. 5월 27~28일 열린 올해의 주제는 '스토리'다.

서울디지털포럼 사무국은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의 형식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디지털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창의적인 스토리의 힘은 영원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대전환기라 할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다음 단계의 장을 열게 될 스토리는 무엇이며,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스토리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 한은 서울디지털포럼 둘째 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멀티 터치스크린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제품이라기보다 유비쿼터스 개념과 같이 새로운 개념의 기술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멀티 터치스크린 기술의 가능성은 앞으로 무궁무

"2006년 회사를 창립할 때만 해도 개념을 설명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죠. 최근 들어 소형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멀티 터치 기술이 대중화돼 지금은 멀티 터치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조영철 기자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스토리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한 자리가 된 '서울디지털포럼 2009'.

진하며, 현재는 그 가능성의 극히 일부만 실현된 수준으로 걸음마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멀티 터치스크린 기술이 컴퓨터의 개념과 모습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예견했다. 멀티 터치스크린을 통해 키보드와 마우스가 아닌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용 가능한 손짓으로 컴퓨터와 자연스럽고 간편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컴퓨터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멀티 터치 기술 연구개발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2006년 회사를 창립할 때만 해도 멀티 터치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또한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념을 설명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죠. 최근 들어 아이폰이나 햅틱 등 휴대전화나 노트북, 소형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멀티 터치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일반 대중들이 멀치 터치 기술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멀티 터치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그는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멀티 터치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협업을 통해 이 기술이 가진 잠재성에 대해 배워가고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 정부, 국방부 등과 정보 처리를 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기업 쪽과도 연계되어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프 한은 시장의 경쟁 구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러 업체들이 '우리가 제일 먼저 출시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앞 다투어 이 기술을 대중에게 선보이다 '별 거 아니다'는 실망감을 안기게 될까 걱정된다는 것. 그는 경쟁보다는 시장 전체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경제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 "한국 경제 회복세" 낙관

'닥터 둠(Dr. Doom)'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해온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개막식 기조연설과 연설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와 관련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해 크게 위축됐던 한국 경제가 올 1분기 들어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했고 2분기에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4퍼센트엔 못 미치겠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1.5퍼센트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긴장 요인을 무시할 순 없지만 핵실험 이후 한국 시장은 단 하루 만에 쇼크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이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인 데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앞날에 대해선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지만 아직 바닥을 쳤다고는 할 수 없다"며 비관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다음 달부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는 낙관론자들도 있고 미국의 적극적 통화 · 재정 정책으로 위축이 둔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올해 말까진 침체가 이어질 것이며,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회복 속도가 더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비니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의 경제 상황이 선진국들보다 빨리 회복될 것으로 관측했지만 내수시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출 시장인 미국의 소비 성향이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내수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에 경제 회복 여부나 시기가 달려 있다"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을 활성화시키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 세계 석학 30여명 국제심포지엄

초고령 사회 중장기 대책 세우자

선진국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안을 찾으려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사회통합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해외로부터 불어닥친 금융위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우리의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경제상황 악화는 우리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서민층,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가의 의료보장, 고용, 서민복지 등 사회정책이 부실해지면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적 석학 등 30여 명 참석… 이틀간 열띤 토론

현 위기 속에서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 의료보장, 연금, 고용, 사회복지 등 선진국들의 사회정책 성과를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5월 27일과 28일 열린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그래서 눈길을 끈다.

국제심포지엄은 외국의 사회정책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극복 방안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미국 UC버클리대 닐 길버트 박사, 브루킹스연구소의 게리 버틀러스 박사를 비롯한 9명(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중국, 일본 등)의 세계적 석학과 국내 교수진 등 전문가집단 3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5월 27일엔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의 정책과제를 어떻게 추진했는지가 발표됐다. 다음 날인 28일엔 경제위기 이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정책과제 등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대안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위기 과정뿐 아니라 경제회복 이후까지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역설했다.

"우리의 경우 1998년 경제위기 후 성장률은 1999년 곧바로 회복됐지만 빈곤율은 오히려 1999년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이후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 지표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빈곤고착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귀담아 들을 만한 선진국의 사회정책들이

게리 버틀러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박사, 카렌 안데르손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 교수, 닐 길버트 미국 UC버클리대 교수(왼쪽부터).

페터 아브라함손 서울대 교수, 교고쿠 다카노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장,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왼쪽부터).

여럿 제시됐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규안전망 수립 문제, 중·장기적으로는 초고령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경제위기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총 4조6천억 엔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중 2조5천억엔은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지원에 집중(신규 안전망 구축)하고, 8천억엔은 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지원비로 투입하겠다는 것이었다.

교고쿠 다카노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장은 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지원비 투입정책에 대해 "국민생활의 안전망기능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수요창출 기능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1백만명의 장기요양 케어인력 고용 창출과 의료산업부문에서 33조4천억엔의 생산유발 효과, 사회보장 적립기금 활용을 통한 5조2천억엔의 자본순환 효과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 간병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했던 여성의 취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얻어지는 기회비용은 2조1천억엔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체계적 사회통합 위한 국가 실천계획 추진해야

페터 아브라함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덴마크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정부의 복지개혁정책은 한마디로 유연성(Flexibility)과 사회보장(Security)을 결합한 '플렉시큐리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고용과 해고가 용이하고, 동시에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및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민간 대비 공공비율을 높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빈곤율을 크게 낮추었을 뿐 아니라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였다는 점에서 플렉시큐리티 모델은 매우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렌 안데르손 네덜란드 라드바우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성숙하고 포괄적인 복지국가는 경제하락 국면에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를 제공한다"면서 "사회통합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네덜란드의 접근 방식은 '복지에 앞서 노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훈련과 재훈련 등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빈곤층 지원정책 등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사회안전망 골격을 갖추고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1차 안전망 역할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차로 위험을 나누고 있다. 그 뒤엔 긴급지원제도가 버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인 수발문제를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선제적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지원대책과 휴먼뉴딜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변용찬 실장은 "이 모든 것이 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사후적 대처 중심이며,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도 국가 주도로 국한돼 있다"고 우려했다.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더 이상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체계적인 사회통합정책 수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유럽연합 국가와 같은 사회통합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훌륭한 경험들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심포지엄의 의미를 정리했다. G

글·최호열 기자

일엽편주(一葉片舟)에 몸 싣고 거친 파도를 가른다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지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경북 포항을 출발해 울릉도, 독도를 거쳐 다시 포항으로 돌아오는 총 6백6킬로미터의 장기 레이스로, 올해는 10개국 40개 팀, 2백6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한요트협회가 포항시, 울릉군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연합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이것이 올바른 예방요령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을 위해서 대국민 행동요령을 국민 모두가 숙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대국민 행동요령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화장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신종인플루엔자 A(H1N1)환자가 발생한 국가 방문한 후 급성호흡기증상(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열감)이 나타나면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주세요.

음식물 섭취로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는 70℃ 이상 가열하면 사멸됩니다.

www.cdc.go.kr

北 2차 핵실험
위기의 한반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북한 핵실험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온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반도에 짙게 드리운 북한 핵실험이라는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더욱 튼튼히 갖추고 있다.

닷새간 미사일 6발… 사거리

정부, 워치콘 2단계로 격상… 추가 도발 대비 만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여기에 이어진 미사일 발사와 서해 5도에 대한 안전 위협에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높여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 오전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강도는 2006년의 1차보다 강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험장소인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발생한 인공 지진파는 기상청 분석 결과 리히터 규모 4.5로, 1차 실험 당시의 3.6보다 강했다.

북한은 관영 언론을 통해 2차 핵실험 사실을 외부에 알렸으며, 이번 핵실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 면에서 높은 단계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이번 2차 핵실험을 하면서 1차 때처럼 사실상 예고를 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의 1차 핵실험을 며칠 앞둔 10월 3일 핵실험을 공식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북한은 4월 29일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조치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2차 핵실험 뒤 2시간여 만에 함남 원산에서 사거리 1백30킬로미터인 지대공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다음날 함남 함흥에서 지대공 미사일 1발, 1백60킬로미터인 지대함 미사일 2 발을 발사했다. 또 29일에도 신형 지대공 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등 닷새동안 모두 6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연쇄 발사는 북한의 핵실험 결과를 확인하려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탐지활동 방해와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 미사일 성능시험 등 다목적용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앞서 4월 5일 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를 발사한 바 있다. 장거리 로켓은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로 변모한다.

북한의 이번 2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북핵 위기를 맞게 됐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거쳐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간의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로 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02년 9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특사가 방북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인했다"고 밝힘으로써 2차 북핵 위기가 촉발됐다. 2차 북핵 위기는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로 이어졌고, 위기가 고조되면서 파국 우려와 긴장 속에 2003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6자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이처럼 북핵 위기를 둘러싸고 남북한과 주변국가들 간에 회담이 이어졌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실시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긴장 상태가 고조되기도 했지만 6자회담을 통해 북미 간 합의가 이뤄져 지난해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이 폭파됐고, 지난해 10월 12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함으로써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동안 '핵시설과 연료의 완전한 폐기'에 대한 검증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이 공전돼왔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여론 속에 2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무엇보다 이번 2차 핵실험은 예측을 하기 힘들었던 데다 노무현 전 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쇄 미사일 발사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군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통령의 상중(喪中)이란 점에서 더욱 전격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PSI 전면참여와 북한의 서해 5도 안전 위협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하루 만인 5월 26일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단,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PSI 8개 협력방안 가운데 5개 협력방안에만 참여해왔다.

이에 북한은 5월 27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강력히 비난하며 서해 5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전협정 무효화를 언급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등 명의의 이 성명은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북한이 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을 들어 "남측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

워치콘 5단계

워치콘(Watch Condition)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할 때 발령하는 대북 정보감시태세. 1999년 6월 연평해전 이후 평시 수준인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올라간 상태가 계속돼왔다.

단계	내용
5단계	도발 징후 경보가 없는 일상적 상황.
4단계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잠재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 지속적인 적정(敵情) 감시가 필요하다.
3단계	국가안보에 위협이 점증하고 있어 주의 깊은 적정 감시가 필요한 상황. 정보요원 근무가 현저하게 강화된다.
2단계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이는 상황. 첩보위성의 사진 정찰, 정찰기 가동 등 다양한 감시와 정보분석 활동이 강화된다.
1단계	적의 도발이 명백한 때. 한반도에서 아직 발령된 적이 없다.

1백60킬로미터

폭파되는 영변 핵시설 냉각탑.

연합

북핵 사태 일지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3년 3월 12일	북,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
1994년 6월 13일	북, 국제원자력기구(IAEA) 공식 탈퇴
1994년 10월 21일	북미, 경수로 건설 포함 제네바 합의
1995년 12월 15일	북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공급협정
1997년 7월 28일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및 부지 공사 착수
2002년 9월 16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유"
2002년 10월 3일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특사 방북, "북, 우라늄 보유"
2002년 10월 17일	미, "북, 핵무기 개발 계획 추진" 발표
2002년 11월 14일	KEDO, 대북 중유지원 중단 발표
2003년 1월 10일	북, NPT 탈퇴
2003년 8월 27일	1차 6자회담 중국 베이징서 개최
2005년 2월 10일	북, 핵무기 보유 선언
2005년 9월 16일	미,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 발표로 북에 대한 간접 금융제재 단행
2006년 7월 5일	북,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시험
2006년 10월 9일	북, 1차 핵실험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서 중유 대북지원과 영변 핵시설 폐쇄, 향후 북핵 불능화 합의
2008년 6월 27일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2008년 10월 12일	미 국무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2009년 4월 5일	북, 장거리 로켓 발사
2009년 4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규탄 성명
2009년 5월 25일	북, 2차 핵실험
2009년 5월 26일	정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선언
2009년 5월 27일	북, 서해 5도 안전 위협과 정전협정 무효화 거론
2009년 5월 28일	정부, 대북 정보감시태세 워치콘 격상

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임의로 정한 해상군사분계선은 서해 북방한계선(NLL)보다 훨씬 남쪽에 설정돼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5월 28일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워치콘 2단계는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이는 상황을 뜻한다. 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 U-2 고공전략 정찰기와 RF-4 정찰기 등의 대북정찰 횟수를 늘리고 정보 분석요원을 대폭 증강해 북한의 도발 징후 파악과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서해 5도, DMZ, JSA 등 군사 도발 가능성 대비한다

워치콘 2단계 상향 조정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15일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1982년 2월부터 1개월여 동안 IL-28 폭격기를 전진배치하고 훈련했을 때와 1996년 4월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를 기도했을 때,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 그리고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워치콘 2를 발령했다. 이번 워치콘 상향조정과 관련,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현재의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 예상되는 위협을 모두 판단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은 대북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은 평시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서해 5도를 중심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에서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주장한 '군사적 타격'으로 인한 충돌이 서해 NLL 인근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북한의 사곶, 장산곶, 해주, 강령반도 등지에 배치된 해안포와 지대함 미사일 기지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1999년과 2002년 1, 2차 연평해전과 같은 남북 함정 간 해상 교전을 피하는 대신 우리 측 함정이나 전투기를 NLL 인근으로 유인, 해안에 밀집한 해안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기습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우리 해군은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을 실전 배치하는 등 해군 전력을 대폭 증강했다. 반면 북한은 성능이 개선된 샘릿과 실크웜 등 지대함 미사일과 해안포, 곡사포 등을 서해기지에 집중 배치해 놓았다.

군은 서해 NLL의 최일선 경계임무는 해군 고속정이 맡되 유사시 구축함을 NLL에 근접시켜 북한 경비정을 격침할 계획이다. 공군도 북한 전투기의 NLL 침범에 대비해 비상출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

2차 핵실험 강행 북한의 노림수
北 다음 수순은 ICBM 발사?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는 미뤄져왔다. 평양에 대해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를 이어오던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도 대통령 친서를 보내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이러한 온건한 분위기가 무르익던 5월 25일,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평양은 과연 5월 중순 서울과 워싱턴의 분위기를 몰랐던 것일까. 일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 이후 북한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서울과 워싱턴의 최근 '온건' 기류를 정확하게 읽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미사일 · 핵 동시언급… ICBM 카드로 美 압박

여기에는 북한 내 대남라인의 몰락이 한몫한 것 같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이나 미국의 기류를 볼 줄 아는 이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지난해 말 인사 이후 전권을 장악한 군부의 강경노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이다.

북한의 강경조치 패턴이 일정한 시간표에 따르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다. 즉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젖히는' 해로 선포한 2012년까지 북미관계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결과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을 결정지을 대선이 예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평양과 워싱턴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3년에 불과하다. 평양 처지에서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쇠약해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와 후계문제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올 들어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1998년(대포동 미사일 발사)과 2006년(1차 핵실험)의 도박이 둘 중 하나에 관한 것이었다면, 최근 북한은 이들 둘을 조합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과시한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은 곧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다음 절차는 당연히 ICBM 발사다. 향후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수준(중량 1톤 내외)으로 경량화한 핵탄두 개발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현재 북한이 ICBM 발사나 탄두 경량화를 완수할 만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강경 행보는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기술적으로 '다음 단계'를 감행해 미국이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으로 인식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미국 본토까지 핵을 날릴 수 있는 나라.' 이는 김일성 주석의 꿈이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목표였다. 북한 처지에서 핵 보유든 대화든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이 협상보다는 '궁극적 핵 보유'를 목표로 한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져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G

글 · 황일도(신동아 기자)

핵실험 20시간만에 안보리 소집

北 해외계좌 동결 등 강력제재 추진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 공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미국과 유엔은 물론 오랜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까지 한목소리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와 미국이 취하고 있는 변화된 대북 접근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해 핵 프로그램 폐기를 논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강행한 2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보이고 있는 대응의 기조는 신속함과 단호함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월 25일 새벽 2시(이하 미국 현지 시각) 이례적인 긴급성명을 내고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완전히 무시한 이날 행동을 통해 북한은 직접적이고 무모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은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도 기민하게 대응했다.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20시간 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직후 내놓은 공식발표문에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0월 채택)를 명백하게 위반했으므로 이를 규탄(condemn)한다"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즉각적인 안보리 결의문 마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핵실험의 여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제재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안보리가 공식발표문을 내놓은 것은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엄중한 시각을 반영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美 독자 제재 가능성도

안보리 순회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5월 25일 "이번 사안은 안보리 결의 1718호뿐 아니라 핵확산방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까지 위반한 것"이라면서 "매우 심각하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도 회의 후 "'우리'가 오늘 나눈 얘기들은 '신속하고 통일된 비난'이었다"고 말해 중국과 러시아도 이견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지난 4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는 달리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데 이사국 간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 때는 탄도미사일인지, 북한의 주장대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핵실험 강행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이론(異論)이 전혀 없다는 것. 제임스 존스 미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전에 없이 강력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남은 논쟁은 북한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느냐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유엔 관계자들은 안보리의 새 결의가 1718호를 바탕으로 제재가 추가되는 형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식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군사적 수단의 동원은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작성, 5월28일 한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에 배포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초안에는 북한 선박 등에 대한 화물 검사 시행 시 "필요한 모든 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표현, 무력행사를 인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결의의 골간은 1718호 결의의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고려하고 있는 '강화된 대북제재'의 핵심은 1718호 8항에 자세히 열거돼 있다. 모든 회원국의 이행의무사항을 적시한 8항은 각국이 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즉각 동결토록 했다. 또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등과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안보리는 이번 결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1백92개 회원국에 대해 결의문 채택 후 한 달 이내에 각국의 이행조치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무기금수 대상을 미사일 및 그와 관련된 대량살상무기에서 경화기로 확대하고,

제재대상 북한기업을 늘리는 한편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제임스 존스 미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 5월 27일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가능성과 관련, "미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변화(Change of Behavior)를 가져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그 결단 역시 임박했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날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6자회담에서의 합의를 파기하는 선택을 했다"며 "이런 행동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린턴 장관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응분의 대가'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은 위협을 통해 주목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위협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갈망하는 관심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만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과 별도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고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다시 발동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DA 제재를 진두지휘했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차관보가 여전히 재무부에 건재하고 있어 제재 발동은 결단의 문제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단지 BDA에 있던 북한의 자금을 인출시켜줬을 뿐 BDA에 대한 제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런 제재 방안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북한이 이용하는 은행을) 국제금융시스템 위반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이 북한 정부의 해외 금융계좌 접근에 대한 제한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재무부가 현재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추진 중인 이 조치는 김정일 일가의 유럽 및 중동 금융계좌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가운데 핵 관련 물질이 선적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강제 수색권을 발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 마련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해제했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이 경우 북한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한 제재를 받게 되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들의 대북 차관제공의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

미국이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의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안보리 결의이행의 실효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를 비롯해 안보리는 모두 10차례에 걸쳐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지만, 결의문에 담긴 내용을 철저히 이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과 미국이 양자대화에 나서면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잊혀진 결의'가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제재를 강행한다 해도 제재의 목표는 원칙적으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끌어오기 위한 것이지 북한체제의 붕괴나 징벌 성격의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미국 정책당국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보수적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와 미국이 취하고 있는 변화된 대북 접근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해 핵 프로그램 폐기를 논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하태원(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연합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사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일본에서는 북한 핵실험 직후 호외 신문이 발행되는 등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中·러도 "결사 반대" 한 목소리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은 핵실험 이틀 뒤인 5월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 위배되며 북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뜻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 부주석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고'에 가까운 것으로, 핵실험 당일과 이튿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 성명과 대변인 성명에서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강경해진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결사반대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핵확산을 저지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정세를 더욱 악화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6자회담의 궤도로 돌아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北 우방 양국 모두 "평양 핵실험 반대"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환치우(環球)시보〉는 5월 26일 '북한은 다시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핵무기는 일시적인 교섭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소국(小國)이 핵무기에 의지해 자국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중국 내 전문가 2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0명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좀 더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5월 26, 27일 연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단호히 반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에 저항하는 것' 등의 제목으로 1면 기사로 취급했다.

하지만 핵실험에 대해 〈런민일보〉는 5월 28일까지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도 5월 26일 '평양의 핵실험이 베이징에 충격을 주다'라는 제목으로 1면에 소개하는 등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5월 27일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핵실험 실시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사 소환 사실을 전하면서 김 대사에게 역내 안보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에 북한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AP연합

북한에 대한 비판에 합류한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대사.

러시아 외무부는 핵실험 당일인 5월 25일 성명에서도 "이번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결사반대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핵확산을 저지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러시아 언론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러시아가 추가 제재는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추가 제재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보다 심한 제재에는 동참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러시아 일간 〈브즈글랴드〉는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경수로 건설 등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G

글·구자룡(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PSI 전면 참여 정부,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신속' '단호' '대비'로 압축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5월 25일, 우리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북한 핵실험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함과 동시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공조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했다.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과 전화 접촉… 공조 체제 구축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 하루 뒤인 5월 26일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 단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핵실험'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에 'PSI 원칙 승인'이란 조치로 즉각 응수한 것이다.

로이터

북한 2차 핵실험 하루 뒤인 5월 26일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5월 26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국제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과 연쇄 전화 접촉을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5월 2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1차 핵실험 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이 대통령은 6월 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할 예정이다.

5월 27일, 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양국 간에 긴밀하게 더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른 관련국들과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과 최근 진행 중이던 러시아와 북한 정부 간의 협의도 연기했다"고 화답했다.

서북해역 운항선박 안전대책 시행

이에 앞서 2차 핵실험 당일(5월 25일)에는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실제로 당일에 회의가 소집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돼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에 비상대책팀을 운영해 국제금융, 국내금융 및 실물경제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자, 외신 등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과 연쇄 전화 접촉을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북한의 서북해역 항해금지구역 설정과 관련 인근 운항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국토해양부는 북한의 동해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응해 관련단체 및 선사들에 안전대책을 통보한 데 이어 북한 서북해역 인근을 운항하는 선사 등에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을 통보했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활용해 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만일의 경우 항로변경을 유도하는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G

글 · 구자홍 기자

대량살상 무기 싣고 우리 영해 통과 못한다

로이터

PSI 전면 참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한 부분이다.

5월 25일 북한의 갑작스러운 2차 핵실험 후 우리 정부가 전면 참여를 선언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무엇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PSI에 참여하면 우리는 우리 영해나 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정선(停船)이나 착륙 명령을 내린 후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영공과 영해는 영토처럼 우리의 주권이 완벽하게 미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선이나 착륙 명령을 내려 검색할 수 있을 터인데, PSI에 참여할 경우 새삼 정선이나 착륙 명령을 내려 검색할 수 있다니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영공은 영해선을 수직으로 이은 안쪽의 하늘이다. 따라서 영해에서의 우리 권리를 이해한다면 이 질문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영해는 영토에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가리키는데, 이 바다에 대한 주권은 이 바다에 면해 있는 연안국이 갖는다.

주권과 재산권은 크게 다르다. 이를 이렇게 비유해 설명하기로 하자. 한국 선박이 일본 영해에 있다면, 이 배는 한국 배인가, 일본 배인가? 정답은 한국 배다. 그렇다면 아무리 주권을 갖는 일본이라고 해도 한국 배를 마구 검색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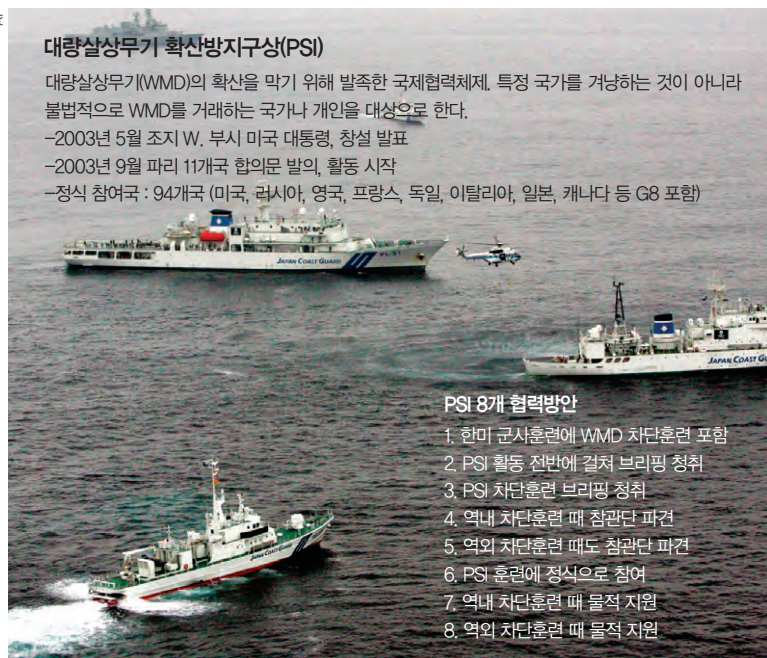
대량살상무기 운송 선박 검색 가능해져

만약 일본이 그들 영해에 들어온 한국 배를 전부 검색한다면 한국도 한국 영해에 들어온 일본 배를 전부 검색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두 나라는 통상(通商)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연안국에 피해를 주지 않고 연안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박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지 않는 관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선박 중에는 특정국의 영해를 통과하기만 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캐나다 배가 멕시코로 간다면 이 배는 미국 영해를 통과해 남하하는 것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육지에서 먼 바다일수록 파도가 높기에 될수록 연안에 붙어 항해하는 것이 배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러한 배들은 미국 연안을 '단지' 통과만 하니 미국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운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항해는 서로 허용해주는 것이 이익이 되니 선박 운항에서는 연안국에 해(害)를 주지 않는 선박은 자유롭게 영해를 지나가게 한다는 '무해(無害)통항권'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무해통항권을 이용해 '나쁜 거래'가 이뤄진다. 이를 이렇게 설명해보자. A국 소속의 배가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B국 영해를 통과해 C국으로 간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국 배는 B국 영해를 통과만 하니, 이 배는 B국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요구할 수 있고, B국은 이 배의 통항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생긴다.

무해통항권이 안고 있는 이 중대한 허점을 메우기 위해 2003년 5월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 바

로 PSI다. B국이 PSI에 참여한 나라라면, B국은 이 배를 세우고(정선)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는 검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A국 선박은 B국 영해 밖으로 항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A국 선박의 항해거리는 길어진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는 연안에 비해 파도도 확실히 거칠다. 그리고 공해(公海)로 불리는 이러한 바다에서 큰 힘을 쓰는 것은 상시 12척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대(大)함대를 운용하는 미국 해군이다.

공해로 나오게 된 A국 선박은 금방 미군의 추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목적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목적지가 있는 나라마저도 PSI에 참여한 나라라면 미국은 이 선박에 대한 정보를 그 나라에 제공해 검색하게 할 수 있다.

한국, 北 2차 핵실험 계기로 95번째 참여 선언

모든 상선은 출발지와 목적지만 운항하지는 않는다. 열차나 고속버스처럼 중간중간 기착을 하면서 물품을 싣고 내린다. 따라서 반드시 PSI에 참여한 나라의 항구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미국이 정보를 주면 그 나라는 이 배를 검색해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될 경우 압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PSI의 힘이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로 번역되는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 확산방지 제안을 뜻하는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를 붙인 것인데, 보통은 WMD를 떼어내고 뒷 문장의 머리글자를 따서 PSI로 부른다.

PSI에서 주목할 것은 마지막 단어인 '제안(이니셔티브 · Initiative)'이다. 나라와 나라 간의 질서를 규율하는 것에는 조약, 협약, 합의, 체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조약과 협약이다. 한일기본조약, 유엔해양법협약 등은 참여한 나라가 국회 동의까지 받기에 구속력이 강하다.

합의와 체제 등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지만 때로는 조약이나 협약보다 강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미국과 북한이 북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1996년 합의한 제네바 합의는 2002년까지는 상당한 구속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확산을 막는 강력한 방어막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안으로 번역되는 '이니셔티브'는 이것보다는 구속력이 약하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이것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많은 나라가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며 동의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행동에 들어간다면 이는 조약이나 협약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다.

PSI도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여러 나라가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힘을 발휘했다. 이번에 한국은 95번째로 참여를 선언했다. 95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것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의 확산이 그만큼 커졌음을 방증한다.

PSI 참여국들은 영해뿐 아니라 공해에서도 수상한 선박을 검색하겠다는 기류를 만들고 있다.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수출은 북한정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금줄이다. 이 자금줄을 조이겠다는 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이 2차 북핵 실험을 계기로 뒤늦게 참여를 선언했다.

조약도 협약도 협의도 체제도 아닌 제안이지만 PSI는 어떤 조약보다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큰 압박 수단이 될 전망이다. G

글 ·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北, 결국 北·美 대화 꺼낼 듯”

북한은 핵을 이용해 위기국면을 조성한 뒤 협상에 나서는 전략을 고수해왔다. 이번에도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북미 대화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북미 대화와는 그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기까지 북한의 행보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정치적 불만을 표시하며 장거리 로켓 등 미사일을 발사했고, 국제사회가 이를 제재하자 보복 형식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다.

1차 핵실험 당시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예치된 북한 돈 2천4백만 달러를 동결하는 금융제재를 가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장거리 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 등 모두 7발을 동해상으로 무더기 발사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월 15일 결의안 1695호를 채택해 제재를 가하자 이에 반발해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발했지만, 11월 1일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한다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11월 28일과 29일 미·북·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고 이어진 회담을 통해 2007년 2·13합의가 이뤄졌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벼랑 끝 대치는 1차 핵실험 때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함경남도 검덕광산을 시찰하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직접 대화를 바랐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다. 북한은 올해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같은 달 14일 유엔이 대북 비난 성명을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오다 5월 25일 두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이 이제까지 해온 행태를 답습한다면, 조만간 미국과의 대화 무드를 조성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자신의 책 <북한의 선군 외교>에서 북한은 1993년 이후 대미 핵협상 과정에서 핵실험 같은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이에 국제사회의 맞대응이 나오면 위기관리 모드로 전환한 뒤 협상국면을 조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으니까 북한이 이번에도 미국과의 협상에 조만간 나설 것이라는 논리에는 약점이 있다. 이런 논리는 북한 핵을 둘러싼 상황의 주도권은 오로지 북한 지도부에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나 북한 지도부 내부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위협하면 지원” 과거 방식 반성 목소리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분위기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와 다르다. 이는 ‘학습효과’ 때문이다.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은 이제 미국을 향한 ‘협상용’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인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보위용’임이 명백해졌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앞에서는 대화를, 뒤에서는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면 대화를 통해 지원을 약속했던 과거 방식이 북한의 버릇을 망쳤다는 반성도 많다.

북한 지도부도 3년 전의 그들이 아니다. 후계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늙어가고, 인민들에게 제시한 2012년 ‘강성대국의

그러나 다시 시작되는 북미 대화는 과거와 다를 것이다. 핵능력이 커진 북한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더 확실한 ‘진실’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진실의 순간’에 다시 한 번 서야 할 것이다.

연합

북한은 5월 26일 평양체육관에서 2차 핵실험을 축하하는 군중대회를 열었다.

대문을 여는 해'는 3년밖에 남지 않았다. 북한은 조급하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미사일 발사에서부터 3개월 이상 걸린 반면 이번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1개월 20일 가량이 걸렸다. 북한은 1차 핵실험 때는 실행 1주일 전 국제사회에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포괄적인 가능성만 언급한 뒤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했다. 여유가 없는 모습이 역력하다.

유엔 중심 추가 대북제재… 中도 강력 비난

그럼 어떻게 될까. 우선 북한과 국제사회의 벼랑 끝 대치는 1차 핵실험 이후보다는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유엔을 중심으로 추가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1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명백한 핵 보유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가능한 한 많은 핵기술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3차 핵실험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언젠가는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이다.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미국 행정부에 북한은 위기이자 도전이다. 적당한 시점이 되면 북한은 다시 대화로 시간을 끌면서 핵기술 개발과 경제적 지원 요구를 병행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시작되는 대화는 과거의 북미 대화와는 다를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 그대로 강력하고(turf) 직접적(direct)인 것이 될 것이다. 핵능력이 커진 북한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더 확실한 '진실'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진실의 순간'에 다시 한 번 서야 할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것은 여기까지다. 다음부터는 시나리오의 영역이다. 모두가 바라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협상을 통한 해결이다. 둘째, 북한의 변화를 통한 해결이다. 마지막은 북한의 파국을 통한 해결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고 대신 한국과 미국 등의 도움을 받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 지도부가 교체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핵이 아닌 경제개발 등 다른 생존추구 전략을 찾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도 국제사회도 전환에 필연적인 불확실성을 한동안 감수해야 한다.

마지막 경우는 더 설명하기도 두렵다. 미국 민주당 행정부는 1994년 1차 핵위기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고민한 적이 있다.

북한이 처음의 두 길을 걷기 바란다. 비핵화되고 개방화된 북한과 함께 잘 사는 것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며 한국인의 한결같은 염원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깨달았으면 한다. G

글 · 신석호(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 북한학 박사)

20세기에는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한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세계를 이끄는 녹색 선진한국을 구현하기 위한 그린스타트운동이 있다. 그린스타트란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녹색생활운동이다. 저탄소 생활방식을 정착시켜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일구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정, 상업, 교통 등 비산업부문이 43퍼센트를 차지한다. 산업부문은 그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이를 줄이려면 기술 개발, 시설 대체 등에 장기간, 고비용이 필요한 데다 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비산업부문은 산업부문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3~5배 적게 들고, 효과도 바로 나타난다. 다만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다. 시민의 참여로 일궈낸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역량 확보에도 크게 기여한다. 환경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그린스타트운동을 추진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경부는 경제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기구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환경재단 등 36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광역·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네트워크도 만들었다. 5월 현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으며, 시군구 단위의

지난해 10월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그린스타트 한마당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재활용품으로 만든 로봇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

온실가스 줄이고 기후변화 막고

녹색으로 살아야 지구도 산다

환경파괴 주범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국민운동인 그린스타트운동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살폈다.

2백32개 기초지자체 중에선 1백5개 지자체가 지역네트워크를 갖췄다. 여기에는 1천5백여 개의 단체가 참여했으며 6월 말까지 지역네크워크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방대한 조직망을 갖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지난해 10월 경기 과천시에서 상호 간의 결속을 다지는 그린스타트 발대식과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를 통해 대표자회의체와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사무국 개소가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선 그린스타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전국대회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는 그린스타트운동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 등이 이뤄졌으며, 우주인 이소연 씨와 MBC 신동호·손정은 아나운서가 기후변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올해 들어서면서 그린스타트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지난 3, 4월 '온실가스 줄이기 1백만인 실천서약' 운동을 전국에서 펼쳐 23만여 명의 서약을 받았다. 또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행사의 하나로 지난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열린 '제1회 기후변화주간' 행사에서 77만6천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기간에는 온실가스 줄이기 소등행사 등 지역행사 68개를 포함해 총 75개 행사가 개최됐다.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줄이기에 앞장설 그린리더도 전국 각지에서 모집했다.

지자체 행사도 그린스타트운동 열기에 한몫을 담당했다.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린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4월

동아DB

19일 충북 음성군이 개최한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는 그린스타트운동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인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앞서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주간인 3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그린스타트운동과 병행해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클린코리아운동을 추진했다. 3월 말에는 전국 나눔장터에 그린스타트운동 소개 부스를 설치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 홍보 캠페인과 실천서약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허브로서 그린스타트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홈페이지에서는 녹색생활 프로그램과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도 민관군이 함께한 식목행사 '에코트리' 캠페인, 제품 표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라벨링 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그린스타트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올 하반기의 그린스타트운동은 저탄소 녹색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그린리더 육성에 집중돼 있다. 환경부는 오는 9월부터 16개 광역시도별 주민들을 찾아가는 에코교실(기후학교)을 개설해 연간 3만2천명을 교육할 방침이다. 또한 그린리더는 올 연말까지 5천명, 2012년까지 5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그린스타트란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녹색생활운동이다. 저탄소 생활방식을 정착시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일구는 것이 목적이다.

그린리더는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선도자이자 녹색생활방식을 대중에게 계몽하고 교육하는 지도자 역할을 맡는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방식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역할도 병행하게 된다.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는 기초지자체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청년지도자를 대상으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린리더를 선발해왔다. 현재까지 모집한 그린리더는 3천5백55명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은 각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그린리더를 활용해 각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진단하고 적절한 감축방안을 설계해주는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이지혜 주무관은 "온실가스 줄이기 수칙을 실천하면 가구당 연간 2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67만원을 아낄 수 있다"며 "그린스타트운동은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큰 이득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G

안내 · 그린스타트 홈페이지 www.greenstart.kr

글 · 김지영 기자

지난 4월 개최된 제1회 기후변화주간 기념행사에서 시민들이 지구사우나에 들어가 지구온난화를 체험하고 있다. 오른쪽은 그린스타트 한마당 축하 공연.

환경시계는 09:33 이제 2시간 27분 남았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막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환경시계는 지금 9시 33분을 가리키고 있다. 환경시계는 인류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상태를 12시로 가정해 지구환경의 파괴 정도를 측정하는 시계로,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기까지의 과정은 간단치 않다. 1979년 G. 우델을 비롯한 몇몇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한 적이 있다.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계속 논의한 결과 198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공식 제의했다.

이에 따라 199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방침을 세웠고, 1992년 5월 9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기후변화협약의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개최지의 이름을 빌려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불린다.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해 비준을 받은 나라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1백92개국과 유럽연합(EU)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6월에 가입해 이듬해인 93년 12월에 비준을 받았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한 차등 의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맞춰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최소화하고 역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개방된 국제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협력해야 한다.

한국 포함 1백75개국과 EU, 교토의정서 비준

기후변화협약은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모든 당사국에 공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클로로플루오로카본(CFC)을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해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기후변화협약은 협약 채택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및 동구권과 EU의 16개국을 '부속서I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 나라에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안겨줬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을 이행할 의무도 지게 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지난해 12월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않는 개발도상국가에 속한다.

그동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1995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개최되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의 구체적 감축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의 주요 골자는 △38개 회원국(부속서I 국가 40개국 중에서 터키와 벨라루스는 제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퍼센트 감축할 것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플루오르화탄소, 과플루오르화탄소, 육플루오르화황 등 6가지로 할 것 △에너지효율 증대, 온실가스 흡수원 보호 및 증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산화탄소 분리기술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교토의정서는 한마디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실천지침인 셈이다.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당사국에 공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해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EU는 8퍼센트, 미국은 7퍼센트, 일본은 6퍼센트를 줄이도록 한 반면 '청정국가'로 분류된 호주와 아이슬란드는 각각 8퍼센트, 10퍼센트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미국은 2001년 3월 교토의정서를 탈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 교토의정서는 2008년 4월 현재 1백75개국과 EU에 대해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비준을 받았다.

한편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ET)와 같은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제도도 채택했다. 이를 통칭해 교토신축성체계(교토메커니즘)라고 하는데, 세부운영 규칙은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마라케시 결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한국 16개 CDM사업 진행… 연간 1천톤 이상 감축 예상

CDM은 부속서I 국가가 비(非)부속서I 국가에 투자해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라케시 합의문은 선진국이 교토메커니즘 사업에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은 자제하고, CDM사업 이익금의 2퍼센트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2008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8백39개의 CDM사업이 유엔에 등록됐으며 우리나라는 이 중 1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I는 부속서I 국가가 다른 부속서I 국가에 투자해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또한 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기업별, 부문별로 허용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나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환경부 지구환경과 김종민 주무관은 "선진국을 주축으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전 세계가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한 16개 CDM사업을 통해 연간 1천4백35만 CO_2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자연 배려하고 미래 생각하고

국내 생태여행지를 소개합니다

경남 창녕군 우포늪.

자연 그대로를 체험하는 생태관광이 뜨고 있다. 국립공원과 습지,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가진 지역은 가장 인기 있는 생태관광지다. 정부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0회 람사르 총회(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동안 경남 창녕군 우포늪과 전남 순천만에는 84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는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투영된 결과다. 우수한 자연자원과 주변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체험하는 생태관광은 환경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방식이다. 국민소득 증대와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기존의 관람형 여행에서 레저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체험형 여행으로 여가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여행전문 공공기관인 코레일투어서비스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1박2일 코스로 진행된 소백산국립공원의 '아고산대 눈꽃트래킹 · 선비체험'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에서 차별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고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는 '산양의 놀이터 설악산 · 속초 체험'을, 덕유산국립공원은 5가지 감각을 일깨우는 '통나무집과 함께하는 오감만족'이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한 지리산국립공원이 재래시장과 하동 청학동 삼성궁 등을 돌아보도록 한 '선인들의 발자취 따라 1백리길'과 소백산국립공원이 선인들의 생활을 체험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죽령 옛 고개마을을 가다'도 가볼 만한 프로그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밖에도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아토피 과학캠프', '조랑말 타고 속리산과 친구 되기', '가야산 역사문화체험 1백배 즐기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해 국립공원을 생태관광의 메카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자연 + 역사 탐방… 고품격 생태관광 활성화

습지탐방 프로그램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그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인 장항습지를 중심으로 에코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경기 고양·김포지역 철책선이 군부대와 지자체 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제거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한강하구 철책 중 제거되는 구간은 행주대교(행주양수장)에서 일산대교까지 약 12.9킬로미터에 달한다. 제거 기간은 2010년까지다.

장항습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장항습지의 생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 설치 방안을 비롯해 습지생태관 건립, 탐조대 및 적정 탐방객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장항습지뿐 아니라 최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처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 비무장지대(DMZ) 군사시설 같은 특색 있는 인근지역과 연계한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관할 군부대, 환경단체와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함께 체험하는 고품격 생태관광도 활성화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한 생태관광 홈페이지(www.eco-tour.kr)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면 국립공원별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약도 가능하다. 또한 환경부가 전국 각지에서 추린 생태관광 프로그램 20선(選)도 볼 수 있다.

생태관광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환경부 자연정책과 배연진 사무관은 "호텔 등 편의시설을 선호하는 기존의 패키지 관광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생태관광은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을 다녀가는 생태관광객은 하루 평균 1백 달러를 지역에 남기고 가는 반면, 패키지 관광객은 50달러, 크루즈 관광객은 5센트만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척 논을 습지로 복원하고 갯벌탐방을 특화한 전남 순천만도 2007년 한 해 동안 1백8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7백1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G

글·송지현 객원기자

환경부가 추천한 '생태관광 20選'

프로그램	체험기간	문의
철원 철새탐조관광	당일	033-450-5544
양구 자연체험	1박2일	033-480-2336
평창 자연기행	2박3일	033-330-2368
정선 동강체험	1박2일	033-560-2345
시흥 오이도 어촌마을체험	1박2일	031-319-0205
안산 갈대습지공원 탐방	1박2일	031-310-3472
서산 생태관광	1박2일	041-660-3024
서천 월하성 갯벌체험	1박2일	041-950-4089
청원 자연생태탐방	1박2일	043-220-5682
무주 덕유산 생태탐방체험	1박2일	063-320-2570
신안 흑산·홍도 체험	2박3일	061-240-8442
문경 생태기행	1박2일	054-550-6381
안동 생태바이오체험	1박2일	054-840-6181
울진 왕피천 자연기행	1박2일	054-789-6710
창녕 우포늪생태문화체험	1박2일	055-530-2691
창원 주남저수지 생태기행	1박2일	055-212-2796
부산 을숙도 생태탐방	1박2일	051-888-3592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체험	1박2일	055-860-3251

동아DB

동아DB

경기 안산 갈대습지공원.

경기 시흥시 오이도에서의 갯벌 체험.

환경지킴이 공무원

연꽃심기, 굴뚝관리… 일 궂어도 자부심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환경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이 많다. 환경 오염을 막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기후변화를 감시하는 일까지 각계에서 활약하는 환경지킴이 공무원들을 소개한다.

|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환경지킴이 팔당팀 조성자 팀장 |

"행락객들 버린 쓰레기와 전쟁"

5월 27일 경기 양평군 흑천변에서는 섭씨 30도 가까운 뙤약볕 아래 한강유역환경청 팔당팀 한강환경지킴이들이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조성자 팔당팀장은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식물인 단풍잎돼지풀을 비롯해 가시박, 한삼덩굴 등을 뽑아내며 말했다.

"생태교란식물들은 성장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 근처에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만들고,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물들이죠.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은 흑천뿐 아니라 경안천, 왕숙천, 남한강 일대를 돌며 11월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한강환경지킴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서 낚시나 어로행위, 쓰레기 투기 등을 계도하고 단속하는 일을 주로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처럼 한강 유역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 팔당팀의 경우 지난해 팔당호 부유물을 제거하고 연꽃을 심었으며, 경안천과 왕숙천의 어종을 조사하기도 했다.

한강환경지킴이는 모두 40명. 북한강팀, 남한강팀, 팔당팀 등 3개 구역별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팔당팀 15명은 남한강 일부, 경안천, 왕숙천, 팔당호 등과 주요 지천을 담당하고 있다.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와의 전쟁을 매번 벌여야 한다. 조 팀장의 말이다.

"강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행락객들이 무의식적으로 버리고 가기에 보이는 대로 치웁니다. 그런데 가져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다음 날 그대로 두고 간 쓰레기를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를 당부하고 반신반의하며 돌아섰는데 다음 날 말끔히 치워진 강변을 보면 내 집이 깨끗해진 것 같아 절로 웃음이 납니다."

| 환경관리공단 한강유역본부 대기관리팀 안성준 계장 |

"위험한 굴뚝 올라도 공기 좋아진다면 OK"

환경관리공단 한강유역본부 대기관리팀 안성준 계장은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많은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일을 맡고 있다. 안 계장이 일하는 '굴뚝CleanSYS' 수도권관제센터는 2001년 구축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굴뚝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오염물질이 규제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자료를 행정기관에 제공한다. 또 기업 스스로 오염물질을 규제치 이내로 배출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도 한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측정 장비를 들고 높은 굴뚝을 오르내려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힘들게 측정한 만큼 우리나라 대기의 질이 좋아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조영철 기자

정경택 기자

정경택 기자

조영철 기자

안 계장은 “경제가 어렵다고 눈앞의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한 환경보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업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으면서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환경시설 투자를 기피하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 환경부 창의혁신담당관실 곽충신 주무관 |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번뜩 아이디어 도입

지난 4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는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직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빈 그릇 희망은행’이 문을 열었다. 전자공무원증이 있는 공무원들이 식사 후 전자검사대에서 식판을 검사받으면 1회에 1백원씩 포인트가 쌓이도록 한 것. 공무원들은 이렇게 쌓인 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받거나 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의 주인공은 환경부 창의혁신담당관실 곽충신 주무관이다. 곽 주무관은 구내식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잔반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한번은 ‘음식 쓰레기를 줄이면 온실가스도 줄고, 그 비용으로 결식아동을 도울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포인트제’를 생각해냈다고 한다.

환경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마련해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출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곽 주무관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이 아이디어는 자전거를 이용하면 1킬로미터당 10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상품권을 받거나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그린포인트’제도다.

환경부는 이를 더욱 확대해 자전거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정에서 전기와 수돗물을 절약한 것까지 포인트를 주고 있다. 그린포인트제도는 현재 환경부 직원의 8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빈 그릇 희망은행을 문 연 후 하루 평균 잔반 양도 40퍼센트 이상 줄었다.

곽 주무관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자전거 뒤에는 작은 수레를 달아 과천청사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섯 살 난 딸을 태우고 다닌다. 안양시 평촌 집에서 과천청사까지는 약 6킬로미터. 그가 ‘CO_2 줄이기 나부터’라고 쓴 수레에 아이를 태운 채 자전거를 몰고 지나가면 엄지를 치켜세우며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에게도 말로 하는 환경교육보다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 국립수목원 이정희 연구사 |

“산에서 만나는 나무 한 그루도 소중합니다”

중고등학교 생물시간에는 생물의 기본단위는 ‘종(Species)’이라는 것과 ‘종/속/과/목/강/문/계’라는 분류계급을 배운다. 국립수목원 이정희 연구사가 하는 일이 바로 식물에게 종 단위의 이름을 부여하거나 확정하고, 발생계통상 얼마나 가까운지를 따져 분류계급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한반도와 인근지역에 분포하는 개비자나무속의 종들을 연구하고 있다. 또 수집한 표본 식물의 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집단별로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한 자료는 국가지식종정보센터(www.nature.go.kr)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다음 연구자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이정희 연구사가 속해 있는 산림생물계통연구실은 2007년엔 국가표준식물명을 정했고, 지금은 재배식물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을 세밀화로 남기는 작업을 통해 〈광릉숲에서 보는 풀과 나무〉(2005년), 〈세밀화로 보는 약용식물〉(2008년) 등의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일반인들의 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세밀화 순회 전시회도 열고 있는데, 올해는 ‘세밀화로 보는 희귀식물전’을 선보인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모데미풀이나 동강할미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흔하던 둥글레마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산에서 나

물이나 꽃 하나를 캐는 행위가 그 개체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사람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 구태영 기상연구사 |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상청 하면 일기예보를 떠올릴 것이다. 일기예보가 기상청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지만 기후변화를 감시하는 일도 주요 임무 중 하나다.

안면도에 있는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24시간 감시하는 기상청의 특별 부서이며, 최전선 기관이다. 그리고 이곳에 근무하는 구태영 기상연구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감시하는 파수꾼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큰 관심이 쏠리면서 한반도의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업무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온실가스 농도가 왜 짙어지는지, 혹시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연구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온실가스 측정이 힘든 이유는 배관 연결부위에 이상이 생겨 가스가 새도 확인이 쉽지 않은 데다 온실가스 농도는 극미량인 ppm(1백만분의 1), ppb(10억분의 1), ppt(1조분의 1) 단위여서 고도의 관측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최상의 관측 조건에서 조사한 자료여야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측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고, 기기의 오류나 인위적 오염에 의한 자료 필터링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생산한 자료가 대한민국의 대표 자료로서 언론 및 학계에 공개되고 세계적인 자료센터에 등록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구태영 기상연구사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이 온실가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 환경부 원주청 김기용 주무관 |

"백두대간 아름다운 꽃 지키는 일 행복"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의 검룡소와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인 남한강과 북한강, 우리나라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이 자리한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자연생태가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의 김기용 주무관은 20여 년간 지역 환경지킴이로 일하고 있다.

2007년 그가 시작한 어린이 환상(環狀)생태체험학교는 매년 1백명의 어린이들을 미래의 환경지킴이로 키우고 있다. 또 2008년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제1호 습지인 대암산 용늪을 보존하기 위한 대암산용늪보전협의회를 구성해 용늪 주변의 토사 유출을 막고 식물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김 주무관은 매주 한두 번씩 왕복 6시간이 걸리는 1천2백80미터의 대암산 용늪을 오갔다.

"혹여 훼손됐을까봐 가슴 졸이며 다닌 적도 많아요. 위험하기도 했지만 기생꽃, 동의나물, 물매화, 구절초, 비로용담 등 아름다운 꽃들과 신비로운 용늪을 제 손으로 지킨다고 생각하니 참 행복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이 산이고 작은 하천들이 굽이치는 강원과 충북지역은 야생동식물의 보고지만 개발과 훼손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것들이 많다. 김 주무관은 이를 보존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모니터링, 보호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올 3월부터 그가 맡은 업무는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내는 일이다. 산업단지나 관광지,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그것이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주민들, 사업자,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조정하는 일이 쉽진 않지만 보람도 큽니다."

김 주무관은 몇 마리 꼬리개구리 때문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스키 코스를 바꾼 것처럼 개발 속에서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원주가 고향이고 공무원 생활 내내 강원도와 충북지역의 환경을 위해 일해온 그는 앞으로도 계속 이곳의 환경지킴이로 남을 생각이다. G

글 · 이혜련 객원기자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보는 방법

한국정책방송

KTV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

대한민국 정책포털

희망

대한민국 소통아이콘

‘투르 드 코리아’ 홍보대사 그룹 ‘다비치’

두 바퀴처럼 호흡 맞는 듀엣

‘사랑과 전쟁’ ‘My Man’ 등의 노래로 사랑받고 있는 2인조 인기 여성그룹 ‘다비치’가 자전거 전도사로 나섰다. “어릴 적부터 자전거 마니아였다”는 다비치의 두 멤버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만났다.

자전거 타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비치의 이해리(왼쪽)와 강민경.

5월 18일 오후, 비 갠 뒤라 공기도 맑고 햇살도 따사롭다. 미풍까지 살랑살랑 불어 자전거를 타기엔 안성맞춤인 날씨. 그래서일까. 무대에서와 달리 편한 차림으로 나타난 '다비치'의 두 멤버 이해리(24)와 강민경(19)은 자전거에 오르자마자 신나게 페달을 밟는다. 데뷔 이후 줄곧 바쁘게 지내온 이들은 모처럼의 여유를 온몸으로 즐기는 듯했다.

다비치는 지난해 4월 '미워도 사랑하니까'라는 애절한 발라드로 각종 음악차트를 석권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마쳤다. 뛰어난 가창력과 열정적인 무대 매너로 이후에 선보인 댄스곡 '사랑과 전쟁', 발라드 '슬픈 다짐'은 물론이고 최근 드라마 '신데렐라맨'에 삽입된 'My Man'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년 동안의 고단한 연습생 시절을 잘 이겨내고 데뷔 후에도 줄곧 방송국과 녹음실을 오가며 성실히 보낸 대가다. 그 덕에 지금 이들은 인기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그동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는 휴식이 간절했을 터. 하지만 방송국에서 가까운 서울 여의도공원조차 이들에게는 가깝고도 먼 낙원이었나 보다.

"이렇게 탁 트인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니 날아갈 것만 같아요. 어릴 땐 자전거를 정말 잘 타서 페달을 돌리며 온갖 묘기를 부리곤 했어요. 운동감각이 좋은 편이라서 타는 법도 일찍 배웠어요. 다른 아이들이 세발자전거 탈 때 두발자전거를 탔으니까요."(이해리)

"저도요. 어릴 적에 자전거를 타고 씽씽 달리다가 두 팔을 벌리면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우쭐해지기도 했죠. 초등학생 때 산 자전거가 10대쯤 돼요. 제가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잃어버릴 때마다 부모님이 사주셨거든요. 지금도 접이식자전거 한 대와 전기자전거 한 대를 갖고 있어요. 시간이 나면 종종 타는데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강민경)

세계 각국 선수 참가… 자전거 타기 적극 홍보할 것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인정하는 자전거 마니아다. 이들은 최근 자전거 마니아에게 잘 어울리는 직함을 얻었다. 바로 '투르 드 코리아 2009' 홍보대사.

투르 드 코리아는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달리는 친환경 자전거 레이스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사이클 대회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희망 메시지를 내걸고 6월 5일부터 9박 10일 동안 진행된다. 구간은 서울, 공주, 정읍, 강진, 여수, 거창, 구미, 단양, 양양, 춘천 등 10개 거점도시를 지나는 총 1천4백11.1킬로미터 코스다.

5월 7일 이 대회의 주최 측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비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신선하고 풋풋한 다비치의 이미지가 투르 드 코리아와 잘 맞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비치의 두 멤버도 "무늬만 홍보대사가 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 세계 각국에서 온 3백40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한다고 들었어요. 지난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이 아마추어 라이더들까지 아우른 대회여서 이번에는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대회 개최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다비치는 투르 드 코리아를 통해 자전거 타기의 좋은 점을 널리 알려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자전거만큼 훌륭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없어요. 환경을 파괴하는 매연도 배출하지 않고 별도의 연료 없이도 오래 달릴 수 있잖아요. 자전거 타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해요 – 강민경

투르 드 코리아에 세계 각국에서 온 3백40여 명의 선수와 임원진이 참가한대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전거 타기의 좋은 점을 알려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 이해리

이해리에 이어 강민경도 다부진 각오를 밝힌다.

"앞으로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알릴 거예요. 자전거만큼 훌륭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없어요. 환경을 파괴하는 매연도 배출하지 않고 별도의 연료 없이도 오래 달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부족한 나라인 만큼 자전거 타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해요. 대신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가 많이 생겨야 할 것 같아요."

음반시장 불황으로 가수들의 연기자 전업이 잦은 요즘 다비치는 흔들림 없이 본업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리와 강민경은 "연기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욕심이 많다"며 "앞으로도 가수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클래식을 전공한 이해리와 인터넷 '얼짱' 출신인 강민경은 연습생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사이다. 다섯 살의 나이 차를 뛰어넘어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자매처럼 우애를 나누는 이들은 이제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게다가 좋아하는 음악뿐 아니라 생각과 말투도 비슷해졌다. 발라드든, 댄스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오로지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뮤지션을 꿈꾸는 것도 똑같다.

오는 10월쯤 두 번째 정규앨범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강민경과 이해리. 아름다운 하모니로 심금을 울리는 두 사람의 모습은 두 바퀴의 조화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전거를 닮았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2004 〈올드보이〉 2009 〈박쥐〉… 칸의 남자 박찬욱

세계가 사랑한 한국영화 4번타자

〈올드보이〉에 이어 〈박쥐〉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
이제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박찬욱이라는 브랜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게 됐다.

때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베니스 영화제로 향하던 2005년 여름. 다음 작품에 대한 질문에 박찬욱 감독은 "뱀파이어 영화"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당시 상황을 더듬어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흡혈귀를 의미하는 '뱀·파·이·어'라는 네 음절의 단어가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 블라인드조차 무색케 하는 강렬한 햇빛이 굵은 줄기로 방안에 들이닥쳤다. 빛의 급습과도 같았던 그 시공간의 '연출'에 우리 두 사람은 흠칫 놀란 듯 동시에 미간을 찌푸렸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 사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란 영화를 한 편 찍었고 드디어 박찬욱 감독은 4년 전 그저 뱀파이어 영화라고만 '불친절하게'(?) 설명했던 문제작을 들고 나왔다. 제목은 〈박쥐〉였다.

〈박쥐〉의 주인공인 신부이자 뱀파이어인 송강호는 영화의 첫 장면을 열며 "기억은 그분(하나님)의 장기"라는 그럴 듯한 대사를 내뱉는다. 여기서 묻겠다. 감독 박찬욱의 장기는 과연 무엇일까.

뱀파이어가 된 신부… 인간적 딜레마 그려

폭력성? 위트? 의견은 분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영화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으며 그저 '깔깔'이 아닌 피식 웃게 만드는 또 무언가가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아도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게 '주님의 장기'라던 〈박쥐〉의 대사를 빌려서 말하자면, 박 감독은 극과 극을 대비시켜 묘한 조합을 만드는 데 '비상한 재주'가 있다. 올드와 보이, 친절과

1. 박찬욱 감독은 〈박쥐〉로 2009칸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2. 출연배우들과 레드카펫에서 함께했다.
3. 뱀파이어와 신부의 이질적인 결합을 다룬 영화 〈박쥐〉.

불친절, 그리고 이번 작품에선 신부와 뱀파이어, 바로 선과 악으로 대변되는 아이콘들의 이질적인 결합 말이다.

"신부를 조롱하려 한 건 아닙니다. 도리어 신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죠. 신부는 가장 숭고한 휴머니스트예요. 그런 신부가 남의 피를 마셔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도덕적 딜레마는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그런 설정을 해보았지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파렴치한 악한으로 등장하는 최민식은 비참한 죽음에 앞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라고 말이다. 그렇지만 어느 때부턴가 대중은 박찬욱 감독에게 완벽함을 요구해왔던 것 같다. 칸 영화제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영화 〈올드보이〉가 시발점이었다.

〈올드보이〉 이후 국내 영화계에서는 '이쯤은 되어야'라는 기준이 생겨났다.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의 기막힌 반전은 필수였고 관객을 압도하는 '때깔'은 기본이었다. 또 해외 빅3로 꼽히는 영화제에서 상 한 개쯤은 받아야 이른바 '거장'이라는 반열에 오를까 말까가 된 것이다. 그의 등장 이후 빚어진 일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그가 자초하진 않은 일들이다.

〈올드보이〉 이후 박찬욱 감독은 베니스, 베를린, 그리고 이번 칸 순으로 3대 영화제를 돌며 작품을 선보이는 행운이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역시 칸의 남자였다. 2004년 영화 〈올드보이〉로 이 영화제 장편경쟁부문에서 심사위원대상을 거머쥔 데 이어 올해는 〈박쥐〉로 본상 가운데 하나인 심사위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진심 담은 관객 박수에 수상 기대는 했죠"

"칸 영화제의 공식 상영 뒤 반응이 뜨거워 수상을 조금은 기대했던 건 사실입니다. 관객들이 진심으로 환호해준 것은 해외 영화제에선 처음이었고 그래서 뿌듯했지요."

영화를 만들어낸 결과가 트로피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건 더할 나위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박찬욱 감독은 상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의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제 해외 영화제를 통해 명성을 인정받은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요즘 그에게서 눈에 띄는 점은 연출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박 감독은 영화 〈미스 홍당무〉에 이어 이번엔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 〈설국열차〉의 제작을 맡게 됐다.

"봉 감독이 연출하고 내가 제작하는 첫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할리우드 등의 해외 자본 및 인력과 공동 작업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기대가 큽니다."

부동의 4번 타자와 떠오르는 거포의 만남. 한국영화의 미래가 밝은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G

글 · 허민녕(스포츠동아 기자)

여성긴급전화, 찾아가는 방문 상담서비스
위급할 땐 1366 '쿡'

112나 119처럼 꼭 기억해야 하는 전화번호가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다. 3백65일 24시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돕는다. 위기 여성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 상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1366의 현장 방문 상담서비스는 3회에 걸쳐 제공되며, 연말까지 실시된다.

최근 여성긴급전화 1366에 한 여성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이 때려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크게 다쳤다고 했다. 여성긴급전화 측은 119와 112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다. 경찰과 119 구조대원이 찾아갔을 때 그 여성은 남편이 머리를 벽에 짓이기고 허리를 밟아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여성긴급전화 의료지원병원인 서울의료원에 옮겨진 이 여성은 뇌출혈에다 허리 신경이 손상돼 장애가 올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금도 입원치료 중이다.

"상담을 해보니 남편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상습적인 폭행으로 고소당해 1백 미터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또 찾아가서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어요. 멀쩡한 회사원인데, 생활비도 안 주고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도 없었어요."

서울 여성긴급전화 최승이 상담실장은 갈수록 가정폭력의 수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재발도 빈번하다며 안타까워한다. 최 실장은 맞아서 찢기고 부러진 채 쉼터에 찾아오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면 눈에서 불이 나고 욕이 저절로 나올 때가 많다고 한다.

"아내를 때리는 남자는 대개 자식도 때려요. 어린아이를 집어던져서 팔이 부러지게 하거나, 제 자식을 칼로 찌른 아빠도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생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를 위해 출동

여성긴급전화에는 이처럼 절박함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의 전화가 매월 2천 통 넘게 걸려온다. 그중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 상담이다. 올해 4월까지 가정폭력 상담이 56.86퍼센트, 성폭력 상담이 12.78퍼센트 순이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상담도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여성부는 증가하는 폭력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여성폭력 피해 상담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38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으로 5월부터 현장상담원 2백40명을 전국 16개 시도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배치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현장 방문 상담서비스를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서울 여성긴급전화의 경우 사회복지사,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25명을

선발해 5월 18일부터 현장상담을 시작했다. 현장상담원은 재택근무를 하지만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전화가 오면 즉시 나가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주로 야간에 발생하고 또 위급상황이 많아 2인 1조로 활동하고, 경찰과 함께 출동하기도 한다.

최 실장은 "현장상담 서비스에 기대가 큽니다. 여성긴급전화 일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도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112나 119에 신고를 하고 전문 상담기관을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폭력에 시달리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겪게 됩니다.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해도 올 수 없는 여성들이 많아요. 전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거든요. 전화를 하고도 말 못하고 우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여성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개'라고 말해요. 그만큼 자포자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 찾아가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총 3회 방문… 남편 · 자녀까지 상담치료 도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대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폭력남편이 무서워서 가족, 친지들도 이미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경찰에 대신 신고하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상담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장상담원들이 하는 일이다.

폭력을 당하면 바로 피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을 때는 쉼터로 안내한다. 다쳤을 때는 의료지원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를 써준다. 또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이혼을 원할 때는 가정법률상담소와 연결해준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대개 경제적으로도 열악하다. 남편이 돈이 있어도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아이가 어리거나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이 많다.

이런 여성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지난 5월 8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살고 싶지만 갈 곳이 없는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장상담 서비스는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현장을 찾아 상담을 하고 긴급조치를 해주는 것 외에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면 피해자인 여성뿐 아니라 때리는 남성에게도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부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넘기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부부 상담이나 가족치료로 연결되도록 애쓴다. 특히 폭력남편에게는 분노를 조절하는 훈련과 청소년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의 상처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다. 최 실장의 말이다.

"상담소에서 권하는 부부사랑캠프나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한 후 달라지는 사람들에 꽤 있습니다. 아빠가 달라지면 아이들이 가장 크게 변합니다. 어둡고 기운 없던 아이들이 마른 가지에 물오르듯이 생기가 돌거든요. 제 상담자 중 한 남자는 화가 나면 새가 되어 하늘을 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분노를 조절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젠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대신 혼자 방에 들어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팔을 펄럭이며 깊은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은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요."

여성긴급전화 상담원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상황을 많이 보고 듣지만, 상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여긴다. 폭력 속에 무기력해져 도움조차 청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여성들에게 여성긴급전화의 현장상담 서비스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현장 방문 상담서비스를 통해 연말까지 7천6백명에 달하는 피해여성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장 방문 상담서비스를 원하는 여성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하면 된다. G

글 · 이혜련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일삼는 가해자가 상담 치료 후 달라졌을 때 보람을 느낀다는 1366 상담원들. 왼쪽 위가 최승이 상담실장.

주민번호 유출 걱정없이 클릭클릭

방송통신위원회 캠페인, i-PIN 한글 이름 공모

정보화는 편리함을 주는 대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함께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와 기업들은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일들을 최근에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손쉽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농수산물이나 각종 공산품의 구매도 현지나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해 곧바로 주문해 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 절약은 물론, 복잡했던 업무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웹사이트나 포털 등에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e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광고성 메일이나 전화에 시달리는 정보화의 역기능도 적지 않다. 더욱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등 종종 2차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주기적 암호 변경 · 아이핀 활성화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행위는 개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비대면(非對面)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는 물론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기업도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경우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신뢰를 잃게 돼 마케팅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아이디(ID)와 암호(PW) 변경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에 따른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기업들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관행을 개선해 아이핀(i-PIN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i-PIN은 대면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아이디와 암호를 말한다. i-PIN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기관이나 행정안전부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 사전에 본인 인증을 받은 뒤, i-PIN용 아이디와 암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웹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거나 별도 인증절차 없이 i-PIN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면 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자기정보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자기정보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 업체 14곳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인 i-PIN의 한글이름 공모도 진행한다. i-PIN의 의미가 쉽게 전달되고 기억될 수 있는 한글 이름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G

글 · 구자홍 기자

4대강 살리기
제9화
안동댐
임하댐
2011년 안동시
글 이연수 그림 이호

내가 대학생일 때 임하댐이 세워지면서 우리 종택이 있던 마을도 물에 잠겼어.

너희 할아버지께선 그 기회에 대구로 옮겨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종손이셨던 종조부께선 멀리 가지 못 하시고 안동에 머무셨거든.

토지 보상 받은 돈으로 이것저것 해보셨지만 다 실패하시고 돌아가셨어. 오늘 뵐 오촌 아저씨는 그분 아들이셔.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어! 아버지, 저기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자전거

형님!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금융 위기 때 다 망했다가 하이브리드 자전거 덕분에 살았지 뭐냐.

강변도로 따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
대구도 그래요. 금호강에서 낙동강까지 자전거도로가 쫙 깔렸습니다.

어이쿠, 배까지 다니네요! 그 얕았던 물에!
저 아래 수중보를 새로 고치고 준설공사도 하더니 덩달아 경치도 좋아지데. 구경 오는 사람들 덕분에 다 죽어가던 경기까지 살아나지 않았겠냐.

우리도 유람선 한번 타볼까요?
좋지!
네!

녹색 금융상품엔 이자도 쏠쏠

녹색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금융권도 녹색 금융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녹색 금융상품은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 금융상품 개발이 가장 활발한 곳은 은행권이다. 국민은행의 '사업자 우대적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과 중소기업 전용 적금상품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업의 경우 최고 연 1.0퍼센트 포인트까지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이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해도 기본이율 수준의 특별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한다. 'KB 그린 그로스 론'은 대출이익의 0.5퍼센트(연간 1억원 이내)를 녹색성장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녹색성장 기업대출'을 통해 청정에너지산업과 하이브리드카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업들에게 1조원을 지원한다. 또 '녹색성장 예금'은 최대 0.2퍼센트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판매금액 1만원당 10원을 1년간 적립, 최대 1억원을 녹색성장 관련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에너지 절약 서약서를 작성하는 고객에게 최대 연 0.5퍼센트 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희망 愛(애)너지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서약서에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신한파워 솔라론'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완공 후 전력판매대금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대출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우리은행의 '저탄소 녹색통장'은 가입자에게 자동화기기 이용과 타행이체 때의 각종 수수료를 최고 1백 퍼센트 면제해주고 수익금의 50퍼센트를 '맑은 서울 만들기'사업에 기부한다. 대출상품으로 태양광 관련 중소업체에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비 등을 최장 15년까지 일괄 지원하는 '우리 그린솔라론'과 발광다이오드(LED)기업 전용대출상품인 '우리 LED론'이 있다.

'자전거 보험' 등 보험업계도 Green 열풍

하나은행은 저공해 자동차 보유자, 경차 보유자, 에너지 절약 생활자(전월 대비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10퍼센트 이상 감소)를 대상으로 각각 0.1퍼센트 포인트씩 대출금리를 깎아줘 최대 0.3퍼센트 포인트까지 할인해주는 '-0.3도C 대출상품'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

이밖에도 광주은행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범국민운동인 그린스타트를 후원하기 위한 '그린스타트 예금'을, 농협은 녹색성장활동 참여도에 따라 최대 0.6퍼센트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초록세상 예금'을 판매 중이다.

보험업계에도 녹색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 손해보험사에서 준비 중인 '자전거 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6월 중 출시 예정으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거나 사망했을 때 그리고 벌금과 변호사 비용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을 e메일로 받으면 보험료 할인혜택이 덤으로 주어진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녹색성장과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금융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상품명	은행
사업자 우대적금 KB 그린 그로스 론	국민은행
녹색성장 기업대출 녹색성장 예금	기업은행
신한희망 愛(애)너지 적금 신한파워 솔라론	신한은행
저탄소 녹색통장 우리 그린솔라론 우리 LED론	우리은행
-0.3도C 대출상품	하나은행
그린스타트 예금	광주은행
초록세상 예금	농협

동아DB

평생학습 계좌제는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개인별 '평생학습 계좌제' 내년 시행

저금처럼 차곡차곡 공부도 관리하자

세상은 이제 '관리'의 시대다. 얼굴도, 몸매도,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 재산도 관리해야 한다. 공부는 어떨까? 물론 관리해야 한다.

단순히 학창시절의 성적만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부는 자기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생 꾸준히 해야 하는 것. 그러기에 평생학습 결과도 당연히 관리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개인별 '평생학습 계좌제'를 이용하면 된다.

평생학습 계좌제는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3일 평생학습 계좌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을 명시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습이력 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이 계좌제 시스템에 접속해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상에 자신만의 학습계좌가 개설된다. 이후 자신이 취득한 학위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이나 복지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결과를 누적하여 등록하면 영역별, 수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학습이력 증명서가 발급된다. 그 결과가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토대로 학력인정, 자격취득을 할 수 있고 고용정보자료로도 활용되는 등 경력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전 대덕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 계좌제 시범도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다만 평생학습 계좌에 등록될 학습 프로그램은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개개인의 학습 결과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매우 엄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혹여 질 낮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습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거짓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평가인정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평가인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경기 이천시, 대전 대덕구, 부산 사상·연제·진구, 전북 군산시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 계좌제 시범도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실시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비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평생학습 계좌제의 도입으로 개인이 평생 동안 꾸준히 공부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결실을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종이문화재단

여성부와 종이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종이접기영재지도사 양성 과정. 부업을 꿈꾸는 전업주부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종이접기로 재능 키우고 일자리까지

종이접기영재지도사에 도전해보세요

여성부와 종이문화재단이 마련한 종이접기영재지도사 양성 과정이 전업주부들 사이에 인기다. 아이들 교육과 함께 쏠쏠한 부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부가 종이문화재단(대표 노영혜)과 손잡고 시행 중인 '2급 종이접기영재지도사 양성 과정'이 자녀 교육과 부업을 고민하는 전업주부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종이접기영재지도사란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의 두뇌계발에 도움을 주는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직업이다.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면 방과후 학교나 각급 교육기관, 사회단체 교육기관, 문화센터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종이문화재단 이정아 문화사업국장은 "요즘은 방과후 학교가 많이 생겨 취업 전망이 좋은 편"이라며 "자녀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 두뇌계발과 인지발달, 감성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기관에서 강사로 활약할 수 있어 전업주부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다"고 밝혔다.

종이접기영재지도사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가르칠 수 있는 2급, 초등학교 고학년생부터 중학생을 가르치는 1급, 성인을 가르치는 마스터 과정이 있다. 현재 여성부와 함께하는 2급 종이접기영재지도사 과정만 무료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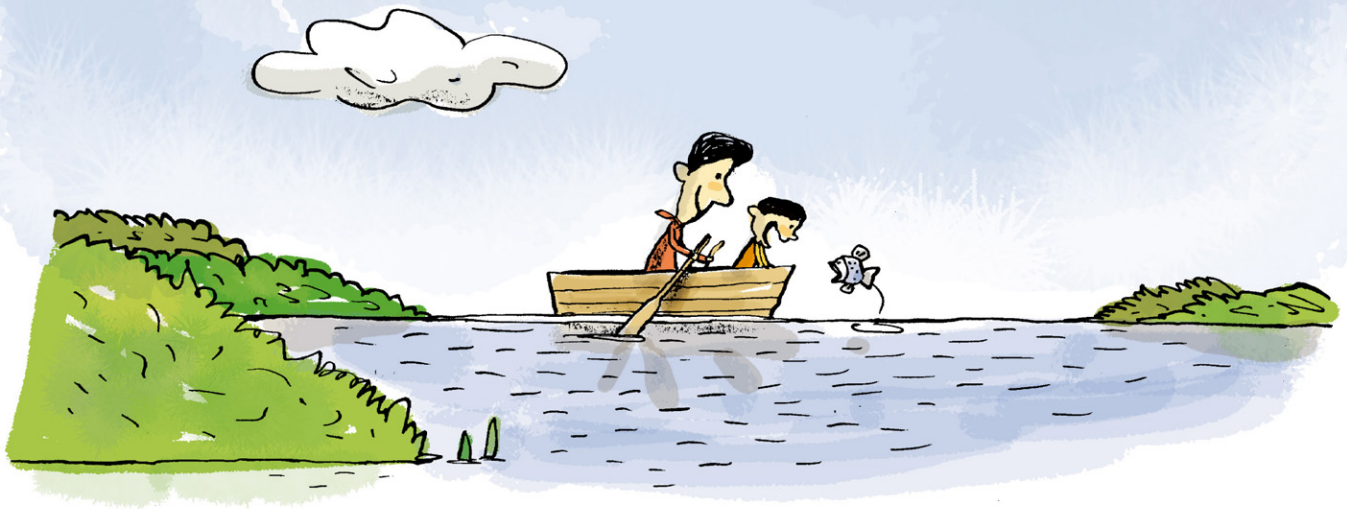
종이문화재단에서 종이접기영재지도사 과정을 마친 배혜진(40) 주부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배운 종이접기로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강의까지 하게 됐다"면서 "아이들 교육은 물론 매달 고정 수입이 생겨 전업주부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2급 종이접기영재지도사가 되면 월 평균 80만~1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현재까지 여성부가 종이문화재단과 함께 개설한 종이접기영재지도사 양성 과정은 총 3기, 90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마지막 과정인 5기 과정(8월 4일~11월 17일, 매주 화요일)은 7월 15일부터 보름동안 신청할 수 있다.

매주 2시간씩 16주에 걸쳐 총 32시간의 전문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검정평가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재료비를 포함한 수업료는 무료다. 수강하고자 하는 전업주부는 e메일이나 우편, 팩스로 참가신청서와 이력서를 종이문화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며, 참가신청서는 종이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G

글 · 정지연 기자

문의 · 종이문화재단(전화 02-2279-7900, 팩스 02-2279-8333, www.paperculture.or.kr)

아하
강이 거기 있었구나

상상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물부족 • 물오염 • 물난리 없는 내일을 위해 4대강 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14조 원 투입, 일자리 19만 개 창출!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4대강 살리기!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물의 가치가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강변, 맑은 물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내년 9월 16일부터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에서 열린다.

세계보건기구 선정 건강도시 충북 제천

조선시대 약령시장 한방엑스포로 되살린다

충북 제천시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국제적인 한방의료관광도시로 거듭난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오래 전부터 명성을 이어온 약초 재배지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아름답다는 수식어만으론 부족할 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제천 하면 우리나라 3대 저수지 중 하나인 오래된 의림지를 떠올리게 마련인데, 차창 밖으로 펼쳐진 그림 같은 풍광들은 하나같이 새롭고 경이로워 보였다.

제천은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도시다. 충북 북부와 강원 남부, 경북 북부의 삼도 접경지역에 자리한 제천은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산세가 수려한 월악산 등 3대 국립공원과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국내 최대 담수호 청풍호반이 있어 예로부터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전국 2위의 일조량을 보유한 청정한 건강휴양도시라는 점도 제천의 자랑거리다.

문화유산도 풍부하다. 농경문화 유적지인 의림지 외에도 구한말 을미의병이 처음 발생한 자양영당, 구석기 유적인 점말동굴, 박달도령과 금봉낭자의 사랑이 깃든 박달재,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학교인 배론성지 등이 유명하다.

제천시는 또한 약초 재배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3대 약령시장 중 하나였던 제천은 지금도 한약재 생산 및 유통의 중심도시로 통한다. 전국 약초 생산의 30퍼센트, 전국 황기 유통의 80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미곡, 고추, 사과, 약초 등 제

천의 특화작물 중에서도 약초가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천시청 홍보전산과 최명훈 홍보팀장은 "맑고 빼어난 대자연의 기운을 품고 있어선지 효능이 뛰어나다"며 "한약재 시장에서도 제천 약초는 알아주기 때문에 해마다 약초꾼들이 많이 몰린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제천시는 한방산업을 특화하고 2006년부터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추진해 왔다. 엑스포는 내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에서 개최된다. 지금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인부들과 포클레인밖에 볼 수 없지만, 머잖아 33만 평방미터 규모의 엑스포 부지에는 세계 유일의 한방생명과학관을 비롯해 한방유통단지, 엑스포광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다른 브랜드 '음악영화제'… 영상도시로 성큼

한방생명과학관은 한방과학의 세계와 한방의 치유원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세계 3대 전통의학과 민간요법 등을 소개하는 곳이다. 약재와 침구 등을 전시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관람객은 외국인 5만명을 포함해 총 8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천시가 키워낸 또 다른 브랜드는 영상도시다. 제천시는 매년 8월 광복절을 즈음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음악과 영화, 자연, 사람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 영화제는 그동안 '비투스' '원스' '로큰롤인생' '카핑베토벤' 등의 음악영화들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제천시는 해마다 초중고생 1백50명을 초청, 청소년영상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부권 영상문화산업의 핵심기지인 영상미디어센터 '봄'을 개관해 영상미디어 교육 및 제작 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제천시는 전국 최초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보건복지센터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기적의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 1백명으로 구성된 시정평가단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이다. 시정운영단은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과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천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한방명의촌.

제천시는 한방특구임을 내세워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건강도시로 지정되는 영광까지 거머쥔 데 이어 엑스포를 계기로 한방, 건강, 청정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청정 관광자원과 레저휴양시설을 연계해 생명과 건강이 어우러진 '녹색건강관광 도시'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제천시청 정광화 홍보전산과장은 "엑스포를 통해 한방바이오 관련 제약, 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기업 유치로 1천5백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2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며 "아울러 엑스포는 주변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해 지역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엄태영 제천시장

"국제적 한방의료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

제천에서 나고 자란 엄태영 제천시장은 시의원을 거쳐 7년째 시장을 맡고 있다. 지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엄 시장이 기획한 작품이다. 엄 시장은 제천이 가진 풍부한 관광자원과 약초로 유명한 청정지역이라는 점을 접목해 국제엑스포로 발전시켰다.

엄 시장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약초웰빙특구라는 제천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방생명과학관, 약초유통단지, 바이오밸리, 에코세라피 단지, 한방명의촌 조성 등 연관된 사업들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모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우리 시는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애용돼왔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촬영한 드라마와 영화가 30편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엄 시장이 설정한 제천의 비전도 한방과 영상,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다.

엄 시장은 "엑스포를 계기로 국제적인 한방의료관광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며 "엑스포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휴양과 레저시설을 갖춰 민간자본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퇴계 이황 선생이 단양군수를 지내면서 단양8경을 칭송해 지금까지 단양이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제천도 한방건강도시로 위상을 다져 앞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한국정책방송 개편 사령탑 손형기 원장

“아침 5시 30분 뉴스를 주목하세요”

한국정책방송 KTV가 6월 1일부터 24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1995년 개국 이래 14년 만에 ‘종일방송’의 새 장을 연 KTV의 사령탑 손형기 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6월 1일부터 KTV가 매일 24시간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 개국 14년 만에 하루 종일 국민들에게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KTV의 종전 방송시간은 20시간이었다. 1995년 개국 당시 방송시간이 8시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방송 분량이 3배 확대된 셈이다.

“종일방송은 요즘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국민들에게 정책 정보를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새벽 5시 30분부터 뉴스를 내보내는 건 큰 장점이지요.”

손형기 한국정책방송원장의 설명이다.

방송시간 연장과 함께 ‘이참의 업그레이드 코리아’가 신설되었고, KTV 간판 프로그램 ‘정보와이드 930’을 오후 6시로 앞당겨 2시간으로 연장 방송하는 등 일부 변화도 있다. 또 그동안 편성이 여의치 않았던 ‘공연초대석’, ‘KTV 중계석’ 등의 방송 시간도 여유로워졌다.

시청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KTV의 인지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를 6월 8일부터 약 한 달간 실시한다. 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 글 구독기) 기능을 추가했고 ‘곰TV’를 통한 실시간 서비스는 6월 1일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7월부터 KTV를 책임지고 있는 손 원장은 EBS, KBS, 경인방송 등을 거치며 시사 교양 및 문화 프로그램 PD로 24년 경력을 쌓은 방송인 출신. 그런 손 원장에게도 정책방송은 녹록지 않은 영역이었다.

시청자와 소통 위해 실시간 서비스

“정부 정책을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촛불 정국 등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정책방송원장으로서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죠.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 의견 역

조영철 기자

손형기 원장은 “종일방송 실시로 국민들에게 정책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KTV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손 원장은 KTV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창구 다각화에도 주력해왔다. 지역 민방 9개사와 맺은 프로그램 교류 확대 양해각서(MOU) 체결이 그 대표적인 예다.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KTV 콘텐츠가 KTV에만 방송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부산·경남지역 대표방송 KNN의 협조를 얻어 KTV 프로그램을 방송했죠. 시청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고 지역 민방과의 협력을 확대했다. 대표적인 예가 격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정책대담'이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이 출연해 정책 현안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패널 섭외 및 질문 작성 등에 지역 민방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말 그대로 KTV와 지역 민방의 '윈윈' 사례다. 이밖에도 지하철 이동방송이나 도시 주요 지역의 전광판에도 KTV 프로그램과 정책 캠페인을 제공하고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KTV를 보는지 물어봐 'KTV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은 손 원장이 강력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정보와이드'와 '인문학 열전'이다.

"'정보와이드'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꼭 보기를 권합니다. 또한 '인문학 열전'은 놓치기 아까운 고급스럽고 깊이 있는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률이나 상업성에 얽매이지 않은 KTV이기에 제작과 방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죠."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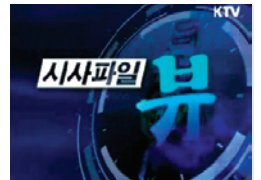
새 프로그램 '이참의 업그레이드 코리아'

'이참의 업그레이드 코리아'(매주 수요일 밤 10시30분~11시 방송 예정)는 시청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를 북돋우고 한국인의 저력을 발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독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방송인 이참 씨(사진 왼쪽)가 진행을 맡았다.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국인 이참 씨의 시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미처 몰랐던 우리의 장점을 찾아내고, 부족한 점은 채우자는 것"이 프로그램 제작 취지다.

6월 3일 첫 방송 내용은 '제2의 금 모으기 운동, 한국식 일자리 나누기'. 많은 이들이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해외에서만 찾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품앗이처럼 아름다운 고통 분담의 전통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한국식 일자리 나누기의 의미와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려 한다. 이후 '한식의 세계화', '다문화사회', '관광발전', '화폐 기술', '대학 경쟁력' 등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볼만한 프로그램

시사파일 뷰 | 매주 목요일 22:30~23:00

사회 이슈와 정책 현안을 다양한 현장 취재를 통해 다각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시사 다큐멘터리.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정확한 논거와 올바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주자는 취지에서 방송하고 있다. 시청자의 편에서 이슈를 바라보고 여론 추이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회 이슈와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준다. 6월 4일에는 '신성장 동력, 10년 후 한국을 준비한다'는 주제로 콘텐츠, 친환경, IT 기술 등 총 17개의 사업을 분석한다.

인문학 열전 | 매주 화요일 17:00~17:50

인문학 거장들의 삶과 연구업적을 통해 우리 시대 자화상을 보여준다. 나아가 인문학적 고찰과 사유, 비판, 반성을 하도록 도와준다. 김갑수 씨의 편안한 진행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상당한 마니아 층을 형성했다. 매주 인문학 전문가를 한 명씩 초청해 대담을 나눈다. 6월 10일에는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두고 대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시대 실크세대 | 매주 목요일 15:40~16:30

취업전쟁에 뛰어든 청년 구직자들과 창업자들의 진취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프로그램. 중소기업 일일 인턴 체험을 하도록 하는 'job아라! 희망 중소기업', 2030 젊은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주목! 실크세대',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내일을 향해 쏴라', 구직정보를 맛깔스럽게 다룬 '안상태의 TIP! TIP! TIP' 등의 코너가 있다. 개그맨 안상태 씨와 아나운서 손문선 씨가 진행한다.

원작, 그 이상… 뮤지컬 '바람의 나라'

서울예술단, 동명 판타지 만화 기본 골격 살려… 6월 30일까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뮤지컬 '바람의 나라'가 다시 관객을 찾는다. 김진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바람의 나라'는 소설,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성공을 거두며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뮤지컬 '바람의 나라'를 공연한다. 이 뮤지컬은 고구려 역사를 소재로 한 김진 작가의 역사 판타지 만화를 원작으로 한 것으로 2006년 초연 이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관객을 맞는다.

'바람의 나라'는 뮤지컬의 기본인 춤과 노래, 대사에 이미지라는 새로운 요소를 가미한 독특한 형식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06년에 한국뮤지컬대상과 안무상 및 기술상을 받았고, 2007년에는 더뮤지컬어워즈 안무상과 조명음향상을 받았다.

이번 작품은 만화 원작 1~6권의 스토리를 기본 골격으로, 고구려 3대왕이자 주몽의 손자인 무휼(대무신왕)과 그의 아들 호동 왕자의 비극적 운명을 독특하게 그렸다.

주인공 무휼 역은 고영빈과 금승훈이 번갈아 맡는다. 2006년 초연부터 무휼 역을 맡은 고영빈은 뮤지컬 '캣츠'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 '대장금' 등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고, 금승훈은 뮤지컬 '공길전'에서 연산군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준 바 있다. 죽어서까지 무휼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해명 역은 초연부터 함께한 홍경수와 양준모, 임병근이 번갈아 맡는다.

혼신의 힘을 다해 무휼 역을 맡겠다는 고영빈은 감상 포인트를 귀띔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시끄럽고 요란한 면이 많은 것에 반해 '바람의 나라'는 이미지가 중심입니다. 미술관에 온 것처럼 차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나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바람의 나라'를 찾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뮤지컬 '바람의 나라'는 11개의 독립된 만화 컷에 클래식, 록, 힙합, 테크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진다. 구성 역시 기승전결 구조가 아니라 소리와 움직임, 이미지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전달한다. 기존 뮤지컬처럼 줄거리를 설명하기 위해 춤과 음악, 대사를 동원하지 않고 비주얼에 초점을 둬 보는 재미를 더한다.

특히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웅장한 음악 아래 12분간 펼치는 2막 첫 전쟁장면은 압권이다. 이 장면의 테마곡 '무휼의 전쟁'은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하얀 거탑'의 배경음악 중 하나인 'The Great Surgeon'으로 사용됐다.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도 화려하다. 원작자 김진 작가가 직접 각색했고, 뮤지컬 '그리스' '헤드윅' '록키 호러 쇼'의 이지나가 연출을 맡았다. '대장금' '하얀 거탑'의 음악감독 이시우, 디자이너 홍미화 등도 참여했다.

연출가 이지나 씨는 "이번 무대는 친절하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대사를 추가했던 2007년도 버전이 아니라 이미지를 더욱 강조한 2006년 초연 버전을 기초로 했다. 여기에 완성도 높은 음악들을 위한 편곡작업과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조명을 대폭 보강했고 캐릭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의상 등을 수정했다"며 "올해 발표되는 작품 중 최고가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일시 6월 10일(수)~30일(화) 평일 오후 8시
토 · 일요일 오후 3시, 7시. 월요일엔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02-523-09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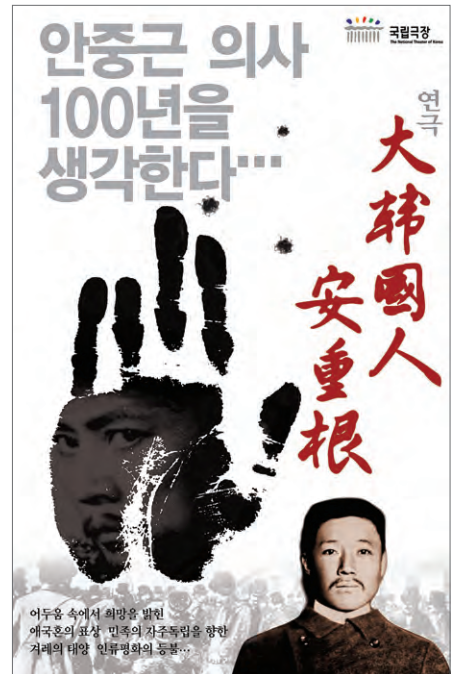
여름 여는 명품 전시·공연 즐기세요

대한국인 안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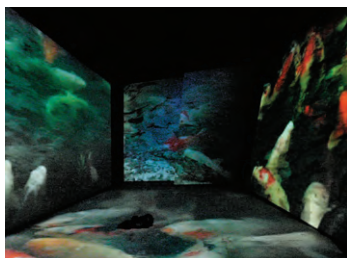
안중근 의사의 서거 1백주년을 맞아 기획된 연극. 단순한 애국독립지사의 범주를 넘어 고절한 신앙인이요, 현실과 미래를 꿰뚫는 안목을 지녔던 정치사상가로서의 안중근 의사를 조명한다. 연극은 안 의사가 의병이던 1907년부터 1910년 3월 30세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낸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 의사의 거사를 세밀하게 다룬 감동적인 무대다.

극본은 극단 현대극장의 대표 김의경 씨가 쓰고, 연출은 현대극장 공동창립자인 JS씨어터 대표 표재순 씨가 맡았다. 안중근 역은 탤런트 최수종이 맡는다. 그는 1997년 '서울 열목어' 이후 12년 만에 연극 무대에 오른다. 또한 "항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형을 받아들이라"고 한 안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역은 탤런트 정혜선이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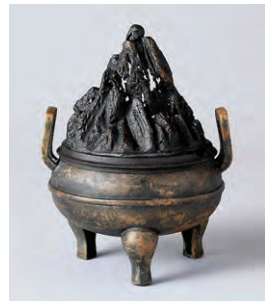
연출을 맡은 표재순 씨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찾고, 이웃나라와의 우의와 협력을 다져 동양평화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자세, 그것이 바로 안 의사의 사상과 행동이었다"며 "그의 국경을 초월한 사상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 6월 4일(목)~14일(일) 저녁 7시 30분,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무료
문의 02-540-2310 www.ntok.go.kr

미디어 퍼포먼스, 춤을 추며 산을 오르다

일시 6월 6일(토)~13일(토)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3시,
월요일엔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02-3272-2334 www.sac.or.kr

댄스포커스 대표로 활동 중인 김효진의 2005년 무용 작품인 '춤을 추며 산을 오르다'를 색다르게 꾸며 선보이는 공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 예술과 기술의 접목으로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보여준다. 무대 바닥을 포함한 4면에 비정형 영상 스크린을 설치해 놀라운 상상력과 표현력으로 몸, 춤, 소리, 이미지가 어우러지는 낯선 영상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발광다이오드(LED), 액정표시장치(LCD) 같은 첨단 디스플레이 영상 솔루션을 통해 현란한 무대에서 음악과 춤이 이어지는 초고속 파노라마는 80분간의 공연 내내 관객의 오감을 사로잡는다.

마음을 담은 그릇, 신안 향로

일시 9월 27일(일)까지 화·목·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토요일 ~오후 9시, 일·공휴일 ~오후 7시
장소 국립극장 문화광장 특설무대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558 www.museum.go.kr

14세기 동아시아에 불었던 향(香) 열풍을 주제로 하고 있다. 1323년 중국의 국제무역항이었던 지금의 닝보(寧波)에서 일본의 교토(京都) 일대로 출발하던 무역선이 7백여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1975년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그 후 약 10년간의 발굴 조사를 통해 신안무역선에 실렸던 중국의 각종 도자기와 생활용품들이 인양됐다. 이때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남방지역에서 자생하는 향료, 향목 및 당시 향을 피우거나 담는 향로와 향합, 향을 피울 때 썼던 향 도구 등이 함께 발굴됐다. 이 전시는 신안 해저에서 인양한 박산향로 등 80여 점의 유물을 통해 7백년 전 향의 쓰임새와 당시의 문화를 보여준다. G

글·김지영 기자

사라지는 풍습들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의 모내기 현장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 직접 모내기를 한 후, 농민들과 함께 막걸리를 곁들인 새참을 들고 있다.

대통령의 모내기와 못밥에 대한 추억

얼마 전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모내기 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새참을 들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참 오랜만에 보는 살가운 풍경이다. 현직 대통령이 모내기 현장을 찾은 것은 12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그 사진 한 장이 오랜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추억의 힘은 강하다. 추억이라는 환등기를 통해 되살아나는 감각은 실제보다 더욱 강렬하다. 특히 사라진 것들과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추억은 그 간절함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생생해진다. 내게 그런 대상은 바로 못밥이다. 아, 이제는 사라진 그 맛있는 못밥!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어린 시절의 못밥 생각이 간절해진다. 1년 중 가장 청명한 계절이다. 그 푸르름과 밝음은 가히 황홀지경이다. 바로 이때가 모내기철이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인 것이다.

모내기 풍습도 많이 변했다. 기계의 힘을 빌려 하는 요즘과 달리 예전엔 모든 것이 손으로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었고, 한편으로 축제와도 같은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모내기는 내 기억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못밥에 대한 추억은 내게 허기와 포만감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집 앞의 논에서 모내기가 있는 날이면 괜히 내 맘까지 들뜨고 바빴다. 바로 못밥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 국민학교에선 모내기철이면 집안일을 거들라는 이유로 단축 수업을 했다. 그래서 오전 수업만 끝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나는 특별히 도울 집안일이 없었기 때문에 집 앞이웃집 논에서 벌어지는 모내기 풍경을 구경했다.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의 부름에 못이기는 듯 끼여 앉아 못밥을 얻어먹었다.

내 추억 속의 모내기는 눈부신 햇살 사이로 이웃 아낙네들이 음식을 가득 담은 점심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꼬불꼬불 논두렁을 따라 걸어오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한손으로는 바구니를 받쳐 잡고, 다른 한손에는 찰랑거리는 막걸리 주전자가 들려 있었다.

바구니 속에 가득 담겨 있던 음식들의 냄새가 고스란히 살아난다. 먼저 완두나 강낭콩이 듬성듬성 박혀 있는 흰쌀밥, 풋고추를 썰어 넣고 고춧가루를 듬뿍 뿌린 자반고등어찜, 아침에 받은 두부로 만든 두부조림, 텃밭에서 기른 가지와 호박 볶음, 그리고 계란찜. 여기에 육개장이나 돼지고기 고추장찌개가 곁들여졌고, 풋고추와 상추쌈은 기본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별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상차림이다. 그런데도 꿀맛이었다.

못밥 맛의 비밀은 생명력

무엇이었을까, 이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상차림을 꿀맛으로 만든 비결이란. 무엇보다 푸릇푸릇한 생기가 넘쳐 났다. 모든 음식에서 생명력이 느껴졌다. 특히 장작을 때서 지은 쌀밥에서 나는 냄새는 아직도 내 후각을 자극한다.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불 냄새' 라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못밥은 도시락이 아니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음식이었고, 그게 맛의 비밀이었다. 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위대함이란! 못밥은 내가 여태껏 살면서 경험한 가장 싱싱한 음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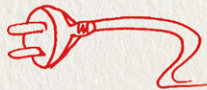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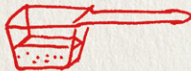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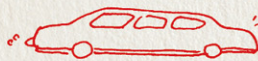
그런데 이제는 그 못밥이 사라지고 있다. 예전과 같은 모내기 풍습도 사라지고 있다. 그 자리를 자장면이나 탕수육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G

글 · 손일영(칼럼니스트)

오수나 폐수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공장이나 자동차의 매연 배출 행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묻는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야생 동 · 식물 밀렵 · 밀거래 행위 등

KOGAS

일회용 컵 안쓰기

적정 실내온도 맞추기

안쓰는 플러그 빼두기

세제 적게 쓰기

경차 · 소형차타기

수돗물 받아서 쓰기

가스불 줄이기

'愛'너지!

사랑한다면 다이어트하세요

하나씩, 한 방울씩, 1도씩...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 경제에 큰 희망이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번거롭더라도
모두를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MKE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